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45

Aug
2026

8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45 Aug 2026

발행일 : 2026년 8월 31일

인쇄일 : 2026년 8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곽성웅, 계용택,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백영준,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목 차

- ▶ 북극에서의 강력한 존재감 재정립,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2022) 내 북극정책 분석 1
곽성웅

- ▶ 북극항로 개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 9
백영준

- ▶ 축치 반도 우엘렌 상아 조각 공방의 역사와 사회적 변화 24
이현경

- ▶ 제임스 쿡의 북극해 탐사 32
이재혁

- ▶ 캄차카 탐험사 – 스타두힌 이야기 8 43
곽성웅

북극에서의 강력한 존재감 재정립,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2022) 내 북극정책 분석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학술연구교수)

I. 서론 - 프랑스와 북극

2026년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중동에서의 급작스런 충격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이후 8월 현재까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2기의 집요한 그린란드 구매마저 대부분의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게 만들고 있다.

현재 유럽이 그나마 이란 전쟁의 충격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북극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영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미국의 이란 공격 초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군사동맹 나토의 유대감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인 2025년 초 (갑작스럽게) 공개된 프랑스 국방부의 『북극 방위 전략』(Arctic Defence Strategy, March 2025) 보고서¹⁾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던지시 보여주고 있다. 영국도 이미 2023년에 발표한 자국의 북극정책 보고서『북쪽을 바라보며: 영국과 북극 - 영국의 북극정책 프레임워크』(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 - The United Kingdom's Arctic Policy Framework)²⁾를 통해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유럽 독자적인 북극 안보 전략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필자가 판단하기에 2025년 초 공개된 『북극방위전략』 보고서는 프랑스의 북극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프랑스의 북극에 대한 고민을 최초로 모두 드러낸 것도 아니다. 이미 프랑스는 2022년 3월 『극단의 균형: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Equilibrium in Extremes: France's 2030 polar strategy, 이하 2030 극지전략)³⁾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극 전략에 대한 내심(內心)을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수립된 프랑스만의 온전한 극지전략을 표방하고 있는 『2030 극지전략』은 남극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북극정책과 전략에 대한 여러 내용들도 상당수 담고 있다.

본 글은 2022년 프랑스가 표방한 극지전략과 그 속에 담긴 북극정책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프랑스가 그리는 유럽 중심의 북극전략에 대한 일면을 예상해보려는 목표로 작성됐다.⁴⁾ 향후 북극

1) DGRIS, *ARCTIC DEFENCE STRATEGY* (Ministère des Armées, Marc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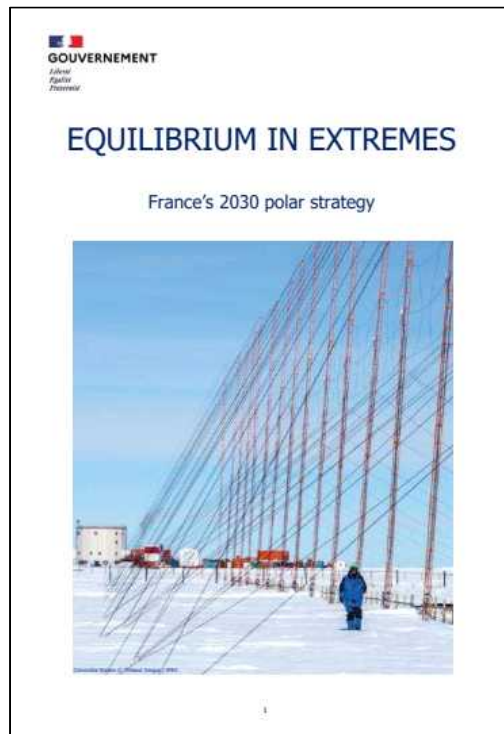
2) Polar Regions Department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 - The United Kingdom's Arctic Policy Framework* (London: UK Government, 2023).

3)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EQUILIBRIUM IN EXTREMES: France's 2030 polar strategy*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March 2022); 이후부터는 『2030 극지전략』으로 부르기로 한다.

4) 그런데 본 글에서 활용하는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 보고서는 프랑스가 공개한 가장 최신의 극지정책을 담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작년 말인 2025년 12월에 『2040 극지전략』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문본

의 지정학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의 가늠자로 『2030 극지전략』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 조금이나마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림 4.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 보고서 (영문본) 표지



* 출처: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March 2022), op. cit., main page.

II. 『극단의 균형: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2022) 수립 배경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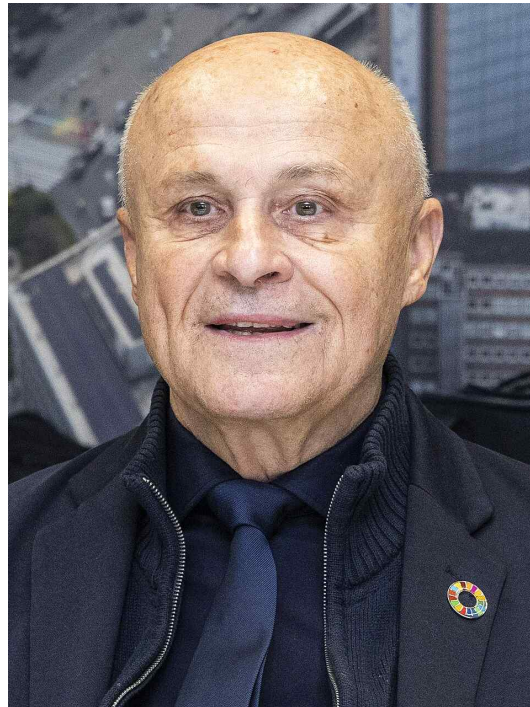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은 프랑스의 유럽외교부⁶⁾가 2022년 3월 발간한 극지정책 보고서로서 유럽외교부 산하 극지해양문제 대사(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인 올리비에 푸아부르 다르보르(Olivier Poivre d'Arvor)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 필자는 부득이하게 4년 전인 2022년 발표한 『2030 극지전략』 보고서에서 북극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이 글에 담았다. 독자 여러분께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March 2022), op. cit., pp. 9-19 참조.

6)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식 명칭은 '유럽외교부'(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이다.

그림 5. 올리비에 P. 다르보르 대사



* 출처: “Olivier Poivre d'Arvor” https://fr.wikipedia.org/wiki/Olivier_Poivre_d%27Arvor
(검색일: 2026.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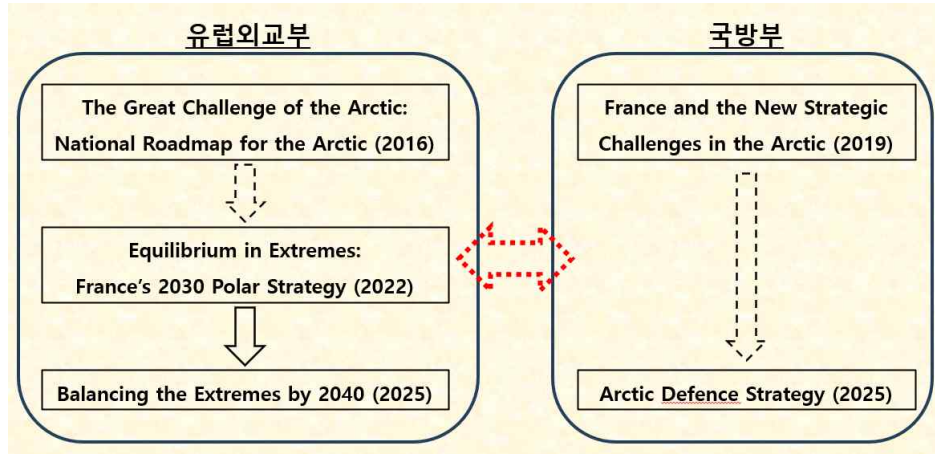
보고서에서는 3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극지전략의 수립배경을 설명한다. 먼저 프랑스가 ‘왜 극지에 초점을 맞추는가’란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남극과 북극 모두 이제 강력한 재정적, 정치적, 전략적, 과학적, 군사적인 압력에도 종속되어 있는 현실 - 특히 핵심적인 지리적 위치를 보유한 러시아가 현재 북극권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유사 북극국가를 자처하는 한편으로 대러 영향력도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이 남극조약에도 도전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프랑스와 유럽 및 국제공동체 모두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행동, 자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왜 2030년에 초점을 맞추는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2030년이 바로 목전에 있기에 프랑스가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것이 틀림없고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2030년은 또한 프랑스에게 미래의 투자 기반을 복구하는 계획의 시점을 의미하는데, 북극을 포함하는 극지는 분명히 그 복구 계획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은 ‘왜 프랑스가 극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로, 남북극을 위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사실 프랑스는 비북극국가이지만 높은 수준의 (북극) 연구를 자랑하고, 북극이사회의 초기 5개 옵서버 회원국 중 하나이며, 거대한 극지 과학인프라도 보유한 극지 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프랑스는 2022년 현재까지 장기적이고도 세계적인 극지 전략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프랑스의 다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자국이 극지 관련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해 2021년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는 극지임무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획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담당부처인 유럽외교부와 실무부처인 극지해양문제 대사가 책임지고 프랑스를 위한『2030 극지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프랑스의 극지전략과 북극정책 수립·발전 과정



* 저자 작성

III. 『극단의 균형: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2022) 내 북극정책 관련 주요 내용⁷⁾

『2030 극지전략』 보고서는 그 내용에서 극지관련 5가지 책무(commitments)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4번째 책무가 북극과 연관된 것으로, 해당 내용의 제목에서 프랑스는 앞으로 자국이 **‘북극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재정립’ (Renewing A Strong Presence in the Arctic)**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⁸⁾ 그리고 이러한 책무와 같은 대명제의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이 7개의 구체적 실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 북극 관련 자원(투입)의 3배 증가 (Trebling resources for the Arctic)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북극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한 예산이나 인적 자원 등을 기존에 비해 3배 이상 투입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북극 지역에서의 기후위기와 전략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원의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극에 대한 자원 투입이 제로섬 게임처럼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가 남극과 아남극 지역에서의 성과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적 경계를 결코 늦추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을 동 보고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2. 북극이사회에서 프랑스의 존재감 강화 (Reinforcing France's presence in the Arctic Council)

7)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March 2022), op. cit., pp. 29-31 참조.

8)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March 2022), op. cit., p. 29.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프랑스가 앞으로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 내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프랑스만의 최적화된 존재감으로 북극이사회에 대한 참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 임시옵서버 지위에 있는 유럽연합(EU)이 북극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옵서버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가 북극이사회 옵서버국으로서의 역할을 여러 측면에서 강화함으로써 북극에 대한 온전한 과학적 기여를 넘어 관련국 간 상호작용을 보다 심화시키는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3.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프랑스가 북극에서의 해양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오스파(OSPAR,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 협약⁹⁾)의 해양 구역과 향후의 중앙북극해 두 지역 모두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북극항로에서 해상과 항공 운송 및 관련 항만 물류 시설의 개발 등을 위해 프랑스 기업들이 기여하는 각종 계약이 현존하고 있는데, 프랑스 기업들의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은 북극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의 활동에 있어 도덕적인 접근이라는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은 북극에서 더 이상의 화석연료(자원) 채굴 금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권고에도 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4. 싱크탱크와 국제 행사에의 활발한 관여 (Being actively engaged in think tanks and international events)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프랑스의 싱크탱크 및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정학, 정치학 등의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북극 관련 싱크탱크와 관련 학계 및 포럼 등에서 자신들의 연구활동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극이사회를 비롯하여 (북극국가 간) 역내 해안경비대 회담, 북극경제이사회, 아틱 씨클이나 북극 프린티어 등과 같은 지역적 범위를 가진 다양한 국제포럼에 대해 여러 노력과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2023년 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북극과학장관회의(the fourth Arctic Science Ministerial, 약칭: ASM4)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

5. 높은 기준의 학술연구와 학술적 상호작용으로의 복귀 (Returning to a high standard of academic research and interaction)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프랑스의 북극에 관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역량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북극 현지 활동은 이제 기술적으로든 물류적으로든 그에 수반되는 필수 요구사항이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고, 현재 북극이 처한 현실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적 측면 모두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들을 검토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동 보고서는 프랑스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북극

9) 1992년 프랑스 파리에서 조인된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약칭: OSPAR Convention)을 가리킴.

관련 대학 교육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일례로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한 ‘화이트 에라스무스’(White Erasmus¹⁰⁾)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을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으로 수행될 북극 연구 프로그램의 설계는 거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 지식과 경험이 활발히 활용되어야 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소통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6. (북극 지역의) 육지와 해상에서 새로운 시설 획득 (Acquiring new facilities on land and sea)

앞서의 연구 역량 강화와 맞닿아있는 계획으로,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기존의 스발바르 과학기지의 시설을 보완하면서 또 다른 영구적인 연구시설 개발 계획도 담고 있다. 특히 한때 프랑스 북극연구의 요람이었고, 현재는 심각한 기후악화의 행위자이자 희생자이기도 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의 영구기지 혹은 과학연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동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가 지체없이 그린란드 자치령 당국과 함께 협력해서 보다 완벽하게 선행 검토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립될 향후 프랑스의 그린란드 과학 프로그램이 그린란드 현지 토착 소수민족과 공동으로 설계되고 그 연구 결과와 혜택도 현지 거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유인책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 브르타뉴 및 노르망디 지방 정부와 함께 관련된 일부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타라(Tara) 국제 북극기지¹¹⁾를 위한 기금이 바로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된 것으로, 현재 총액 1,300만 유로의 기금이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의 일부로 소요 제기되었음을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7. 생피에르와 미켈론의 과학 인프라 투자 (Capitalizing on scientific infrastructure in Saint-Pierre and Miquelon)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해외 영토로 보유하고 있는 생피에르 섬과 미켈론 섬은 프랑스의 아북극(sub-Arctic)과 북극 본토 연구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30 극지전략』보고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공헌이 ‘아북극의 생태계와 사회에 관한 북극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한 학제간 및 국제 플랫폼’(the Interdisciplinary and International Platform for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in Sub-Arctic Ecosystems and Societies, PIRES)¹²⁾에 기반할 수 있다고 보고, 학제 간 교차횡단 연구나 혹은 통합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PIRES 플랫폼이 활용되어야 하고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0) 1987년부터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교육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가리킴.

11) 2008년 북극탐사선 타라호의 운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프랑스의 타라 오션 재단이 2045년까지 추진하는 타라 극지 기지의 일환으로 나온 타라 국제 북극기지(Tara International Arctic Station)를 가리킴. 이 기지는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을 감시하는 ‘북극의 국제우주정거장’(Arctic ISS)라고 불리는 표류식 과학 기지의 형태임.

12) 약어는 아북극의 생태계와 사회에 관한 북극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한 학제간 및 국제 플랫폼(la Plateforme Interdisciplinaire et Internationa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 en zone Subarctique, 약칭: PIRESS)의 프랑스어 명칭에서 나옴.

그림 7. 북아메리카의 생피에르와 미클롱 섬



* 기존 지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V. 『극단의 균형: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2022)의 북극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모두 상존한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2030 극지전략』은 북극을 포함한 극지 전반에 대한 프랑스의 전략적 의지와 관심을 개념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비북극국가로서의 한계를 내보이며 이렇다할 북극전략을 공표하지 않았던 프랑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극에 대한 고관여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부정적 평가와도 일정부분 연결되고 있는데, 동 보고서에 밝히길, “2030년은 바로 목전에 있고,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과연 프랑스 혹은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극을 위해 (전략적, 정책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잘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제2의 북극과학 기지라든가 3배의 자원투입 같은 부분 외에 다른 주목할만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어쩌면 프랑스가 최초의 극지전략 보고서를 구상하고 작성하면서 겪고 있는 성장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극에서의 지정학적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고, 영국과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비북극국가들이 나름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북극국가들에게 구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2030 극지전략』 보고서에서 파악한 프랑스의 북극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공동 대응을 염두에 둔 북극국가들, 특히 유럽의 북극국가들에게 내보일만한 신뢰가능한 협력의지도 불투명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필자는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프랑스가 동 보고서를 발간한 지 3년만에 새로운 『2040 극지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으리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새로 발간된 『2040 극지전략』이 이전 보고서에 비해 한층 더 발전된 정책적 방안과 대책, 신뢰할만한 협력의 의지를 담고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Ambassador for the Poles and Maritime Issues, *EQUILIBRIUM IN EXTREMES: France's 2030 polar strategy*,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March 2022.

DGRIS, *ARCTIC DEFENCE STRATEGY*, Ministère des Armées, March 2025.

Polar Regions Department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Looking North: The UK and the Arctic - The United Kingdom's Arctic Policy Framework*, London: UK Government, 2023.

“Olivier Poivre d'Arvor,” https://fr.wikipedia.org/wiki/Olivier_Poivre_d%27Arvor (검색일: 2026.08.14.).

북극항로 개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¹⁾

백영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1. 북극항로의 부상: 배경과 전망
2. 러시아 북극 전략의 진화
3. 개발 현황과 제약 요인
4. 북극항로 상용화의 현실성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
5. 결론 및 정책 제언

<국문 요약>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가속화는 과거 접근 불가능했던 북극해를 상업적 항로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 8대 거점지대를 지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강력한 북극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는 단순히 자연적 조건의 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서방의 직접 제재와 2차 제재 리스크, '아틱 LNG 2' 프로젝트의 중단, 그리고 동토층 융해와 같은 환경·기술적 제약이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에서 한국은 고위험 직접 투자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LNG선 건조 역량,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 그리고 디지털 운항 지원 기술을 결합한 '단계적·서비스 중심의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제재 환경을 준수하면서도 향후 상용화 조건이 성숙했을 때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북극항로, 러시아 북극전략, 서방 제재, 아틱 LNG 2, 한국의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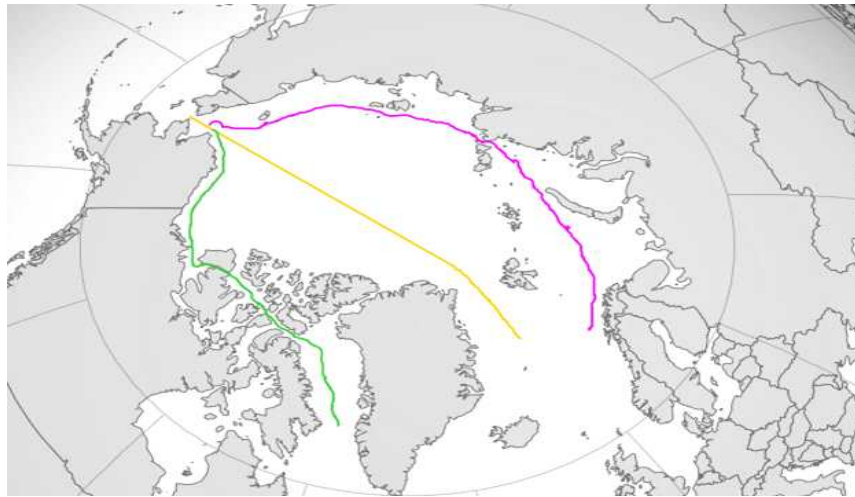
1. 북극항로의 부상: 배경과 전망

과거 북극은 혹독한 추위와 두꺼운 빙하로 인해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자연적 방해물이자 오직 탐험가들만이 횡단에 도전하는 정복의 대상이었으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접근 불가능한 천연의 자연 방벽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 지구 온

1) 이 글은 2026년 3월 6일 북극항로 거점항만의 미래와 과제 토론회(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난화의 가속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해상 물류망 확보 및 미개척지 개발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변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얼음이 완전히 걷혀 연중 항해가 가능한 상업 항로가 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연안에 매장된 막대한 에너지를 채굴하는 2차적인 자원 개발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 1] 북극해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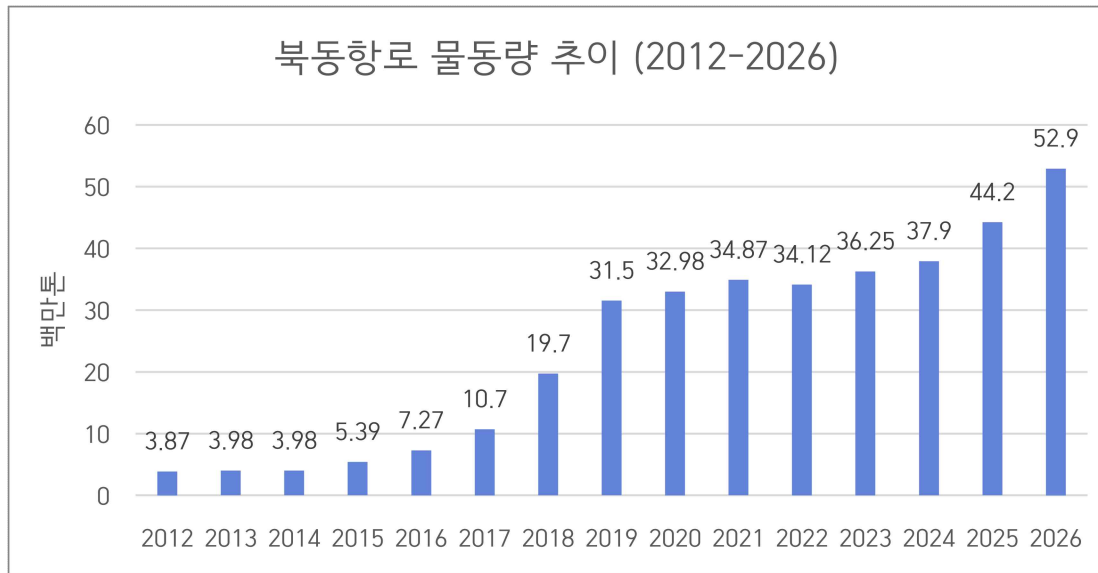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해상 통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북서항로(NWP), 북극횡단항로(TSR), 북동항로(NSR)의 세 가지 주요 루트로 구분된다. 북서항로는 캐나다 북극 제도의 복잡한 섬들 사이를 통과하고, 트랜스 북극항로는 북극점 인근의 공해상을 직선으로 횡단하며,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 북부 연안을 따라 바렌츠해에서 베링해협까지 이어진다.

세 가지 해상 루트 중에서 수심이 얇고 해안선이 복잡한 북서항로나 여전히 빙하가 두껍게 덮인 북극횡단항로에 비해, 기존의 쇄빙 인프라가 갖춰진 북동항로(NSR)가 현재로서 상업적 개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뛰어나다. 특히 광활한 북극 해안선을 보유한 러시아는 이 북동항로 전체 구간의 70% 이상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내수(Internal waters)로 편입하여 항로 통행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언급하는 '북극항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장 현실적인 상용화 경로인 '북동항로(NSR)'를 지칭한다.

<표 1> 북동항로 물동량 추이 (2012-2026)



주) *로사툼과 극동북부개발부의 자료를 사용 재구성한 표임

** 2026년은 예상치임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려 북동항로를 통과하는 화물 물동량은 2012년 약 387만 톤에서 2025년 약 4,420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폭발적이고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정학적 우회로로서 가치가 상승하며, 통과 선박(Transit) 수요 역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북극항로의 연중항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극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극을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발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NSR의 상업화 가능성은 러시아의 기존 쇄빙 인프라와 EEZ 지배력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적 전략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2장에서는 러시아 북극전략의 진화(2020→2035→2050 초안)와 서방 제재가 초래한 변화를 검토한다.

2. 러시아 북극 전략의 진화

2.1 러시아 북극전략

러시아는 북극지역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은 2013년 8월 2일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의 북극지역 개발과 국가안보 확보 전략 2020’(이하 ‘북극지역 개발전략 2020’으로 칭함)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08년 9월 18일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인준된 ‘러시아 북극 국가정책 원론 2020 및 미래 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표 2> ‘북극지역 개발전략 2020’의 주요 목표:

- ✓ 사회 및 경제적 개발: 에너지 천연자원을 위한 거점 개발
- ✓ 군사 안보: 기존의 군사시설 유지 및 새로운 군사시설 확충
- ✓ 환경: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오염에 대비/소수민족 대책
- ✓ 정보 및 통신: 러시아 국내외에서의 북극지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과학기술: 북극지역에 필요한 모든 연구보장
- ✓ 국제협력: 북극지역 관련 국가들과의 win-win 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 활동 지향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러시아의 ‘북극지역 개발전략 2020’은 북극지역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극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인식된 상태에서 설계되었으며, 즉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견고한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극지역 개발전략 2020’의 원래의 계획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2013 ~ 2015년까지 종합적인 개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2015 ~ 2020년까지 북극항로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완료, 국제법적 보장, 환경 및 소수민족 문제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계획 실현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결국 전략을 수정하여 기존 전략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후 2020년 10월 26일 이를 다시 203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기화된 서방의 제재와 동아시아로의 지정학적 물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전면 개정에 돌입했다. 2024년부터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부(알렉세이 체쿰코프 장관 주도)는 기존의 2035년 전략을 대체할 ‘2050년까지의 북극 발전 및 국가 안보 전략’ 초안을 수립 중이다. 이 새로운 2050 전략의 핵심은 과거 서방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던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고, 브릭스(BRICS) 등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극항로(NSR)를 아시아 수출을 위한 ‘글로벌 국제 운송 회랑’으로 독자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전략은 2025년 중반 최종 승인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과의 분쟁은 러시아의 북극개발 기조를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방의 제재는 강화되었으며, 이전의 독자적인 북극 자원개발을 포기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 자본의 투자 및 기술 지원을 받아 북극을 개발하는 정책을 펼쳤다. 서방의 제재는 정부 관료와 기업가는 물론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차 제재의 실행은 외국 기업과의 투자 협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2.2 서방 제재와 아틱 LNG 2 프로젝트의 위기

현재 러시아 북극지역의 거점지대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는 곳이 '야말로-네네츠 거점 지대'이며, 이 지역의 기단반도에서 '야말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노바텍(Novatek)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노바텍(50.1%), 프랑스 토탈(20%), 중국국제석유공사(CNPC, 20%), 실크로드 펀드(9.9%)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성공적인 컨소시엄으로, 연간 생산능력 1,650만 톤 규모를 자랑한다. 서방 제재 속에서도 거둔 야말 LNG의 성공은 러시아에 큰 자신감을 주었고, 후속으로 기단반도의 '아틱 LNG 2(Arctic LNG 2)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지분은 노바텍(60%), 토탈(10%), Japan Arctic LNG(10%), CNPC(10%), CNOOC(10%)로 구성되었다.

'아틱 LNG 2 프로젝트'는 연간 660만 톤의 천연가스 액화설비 3개소(총 1,980만 톤)를 건설하는 세계적 규모의 사업이다. 이 지역의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전 세계의 1/5 수준)을 바탕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잘 진행될 것 같았던 '아틱 LNG 2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제재가 한층 강력해진 가운데, 결정적으로 2023년 11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아틱 LNG 2' 프로젝트 법인 자체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직접 지정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전까지 극지방 시추 장비 수출 통제 등 간접적 수준이었던 제재가 프로젝트 자체를 정조준하면서, 아틱 LNG 2와 거래하는 전 세계 어떤 기업이나 은행도 글로벌 금융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2차 제재' 위험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 제재 조치로 인해 프로젝트 지분의 40%를 차지하던 외국계 주주들의 탈출이 이어졌다. 2023년 12월 말부터 2024년 1월 사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물론, 일본 컨소시엄(미쓰이물산·JOGMEC), 그리고 우호국이었던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CNPC, CNOOC) 등 모든 외국계 파트너사가 노바텍 측에 일제히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공식 선언했다.*

*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지진, 전쟁, 감염병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고 예견 불가능한 외부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심지어 중국 회사들조차 미국 정부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외국 자본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의무가 전면 중단되었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보장받았던 가스 인수(Offtake) 권리와 의무도 전면 백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지휘를 맡은 러시아 노바텍은 막대한 생산 비용을 홀로 감당하며 장기 계약자 없이 현물(Spot) 시장에서 스스로 바이어를 찾아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노바텍은 이러한 고립 속에서도 2023년 말 첫 번째 액화설비의 가동을 강행했으나, 곧바로 치

명적인 물리적 장벽에 부딪혔다. 서방 제재로 인해 한국 조선소 등에서 건조 중이던, 얼음을 깨고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선박인 'Arc7 급 특수 쇄빙 LNG선'을 단 한 척도 인도받지 못한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노바텍은 두바이 등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노후화된 일반 LNG선들을 사들인 뒤, 선박위치추적장치(AIS)를 끄거나 조작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대(Shadow Fleet, 파이오니어호·아샤 에너지호 등)'를 동원해 2024년 8월부터 아시아로의 제한적인 수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위성으로 이 그림자 선대들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여 해당 선박들까지 모조리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가스를 사주려는 국가는 없었고, 수출하지 못한 가스로 인해 육상의 저장 탱크가 100%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생산한 가스를 빼내지 못하는 이중고를 극복하지 못한 노바텍은 2024년 10월 11일부로 아틱 LNG 2의 1호기 상업 생산을 전면 중단(Shut down)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아틱 LNG 2 프로젝트'의 모든 생산 물량은 모두 중국으로 수송되고 있다. 2025년 총 23척 (약 130만 톤)의 LNG 물량을 중국의 베이하이 터미널로 공급하였고, 2026년 1월 말 기준 5척의 선박 물량을 같은 항구로 운송하였다. 이렇게 서방의 제재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밖에 얻지 못한 실정이다.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1호 설비 가동중단 처럼 서방 제재(AIS 추적)는 러시아의 자본·기술 확보를 위협하지만, 동시에 인센티브 정책으로 대응 중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개발 현황(8대 거점·Rosatom 쇄빙선)과 제약 요인(그림자 선대·동토층 융해)을 균형 있게 분석한다.

3. 개발 현황과 제약 요인

3.1 북극개발의 경제적 당위성과 인센티브 정책

러시아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기존의 대서방 경제 협력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북극개발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러시아 북극권은 국가 GDP의 7.5%, 수출의 11%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 지대로 성장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가계획극동센터(Восточны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가 주최한 북극 개발 과학기술 포럼(АрктикТек)에서 러시아 학자들은 북극 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에 1.5~3.0%를 추가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관련 프로젝트들로부터 연방 예산에 1,600억 달러(약 160bn USD)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공식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극 거점지대에 실제로 거주하며 투자하려는 기업과 거주민에게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북극지역에 등록하고 거주하는 거주민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가 프로젝트 참여 시 우

선권이 부여된다. 둘째,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10년 동안 면제, 토지세 처음 3~5년간 면제(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조직 재산세 0~1.1%(처음 5년), 사회통합세 75%, 채굴세(налога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현세율의 0.5% 등이다.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y Chekunkov) 장관은 극동 및 북극·남극 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북극에서 총 35조 루블(약 3,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프는 "민간 자금 5,680억 루블이 북극에 투자되었고, 242개 기업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미 1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극권의 인력 수요는 2024년 기준 66,000명이 부족한 상태로, 이 수요는 2035년까지도 약 51,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3.2 러시아 북극 8대 거점지대의 지정과 의미

러시아는 광활한 북극 연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배정한 8대 거점지대(Опорные зоны)를 지정하였다. 각 거점지대의 위치와 주요 특성은 아래 [그림 2] 및 <표 2>와 같다.

[그림 2] 러시아 북극권 8개 거점지대



러시아는 북극 8대 거점지대를 지정하고 각 지역의 지리적·자원적 특성에 맞춘 세부 개발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각 지역의 전략들은 공통적으로 중심항구를 정비하고 인프라 투자를

와 자원 개발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거점항만과 지역 개발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서 장기적으로 하나의 통합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8대 거점지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은 현재 서부와 중부 권역(야말로 네네츠 거점지대 까지)에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중부(타이미르-투르한 거점지대 부터)과 동부 권역은 여전히 개발 수준이 미약한 실정이다. 아래 <표 3> 참조.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에만 약 2조 루블(약 220억 달러)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2년에 승인된 NSR 개발 계획은 2035년까지 연간 화물 220백만 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국내외적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현재 구체적인 개발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발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러시아 북극 8개 거점지대

권역	거점지대 (위치)	주요 특성
서부	1. 콜라 (무르만스크 주)	- 세계 최대 북극 부동항이자 북극항로 주요 환적지점 - 핵추진 쇄빙선 배치 및 물류·산업 통합 인프라 개발
	2. 아르한겔스크 (아르한겔스크 주)	- '벨코무르' 철도간선 건설로 우랄 산업지구와 연결 - 벌목산업과 선박제조 분야의 지역 혁신 클러스터
	3. 네네츠 (네네츠 자치구)	- 바렌츠 및 카라해 대륙붕 매장지 개발 가능성 보유 - 철도간선과 연계된 북극항로 항구 건설 우선 필요
	4. 보르쿠타 (코미 공화국)	- 페초라 탄광지대와 티마노-페초라 석유가스 지역의 생산지
중부	5. 야말로-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 세계 시장의 주요 탄화수소(가스) 공급지 예상 - 에너지 자원 수출 및 운송용 항구, 교통 인프라 구축 활발
	6. 타이미르-투르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구리, 니켈, 탄화수소 등 비철금속 매장량 풍부 - 행정중심지 두딩카를 통한 무르만스크·아르한겔스크 연결 및 내륙수운 중심
동부	7. 세베로-야쿠츠크 (사하공화국)	- 사하공화국 북부 자원 개발 및 레나 강-북극항로 노선(틱시 항) 연계를 통한 탄화수소 개발
	8. 추코트카 (추코트카 자치구)	-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송경로로서 지리적 이점 보유 (흑독한 기후로 개발 제한) - 물류, 희귀금속, 탄화수소 및 전력 송출 분야 유망

3.3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참여

로사톰(Rosatom)은 2026년 12월 기준 역대 최대인 핵추진 쇄빙선 8척을 북동항로에 동시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4척은 최신예 프로젝트 22220(아르кти카·시비르·우랄·야쿠티아), 나머지는 기존 세대 쇄빙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째 22220급인 '추코트카'는 2026년 12월 인도 예정이고 6번째인 '스탈린그라드'는 2025년 11월 용골이 거치되었다. 나아가 120M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리더(Лидер, 프로젝트 10510)급 쇄빙선 '로씨야'도 별도로 건조 중에 있으며 2027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 확보의 빈자리는 중국이 빠르게 메우고 있으며, 2024년에는 로사톰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북동항로 협력에 관한 포괄적 행동계획에 정식 서명하며 러시아-중국의 북극 개발 밀착을 제도화하였다.

3.4 서방 제재와 기술적 제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서방의 직접 제재는 아틱 LNG 2와 같은 대형 개발 사업에 심각한 기술적 제동을 걸었다. 특히 극한 환경용 Arc7급 쇄빙 LNG 운반선을 공급하던 한국 등의 조선소들이 계약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현재 생산된 가스를 실어 나를 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는 그림자 선대 동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북동항로에서 운용된 그림자 선대 수는 전년 대비 약 8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한 동토층 융해 현상 또한 심각한 환경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북극 인프라 시설 및 건물의 40% 이상이 이미 동토층 융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2050년까지 북극 탄화수소 채굴 현장의 최대 45%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이탈한 가운데, 노바텍·가즈프롬·로스네프트·노릴스크 니켈·루코일 등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북극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서방의 첨단 기술 접근 차단으로 인한 개발 효율성 저하는 구조적 과제로 남아있다.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 개발에 화물 2.2억 톤 운송 목표와 인프라 투자(2조 루블)와 중국 협력으로 뒷받침되지만, 제재·환경 리스크가 변수다. 4장에서는 해빙 가속화·경제성·안전 기준으로 NSR 상용화의 현실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중·일 비교를 통해 한국의 포지셔닝을 제시한다.

4. 북극항로 상용화의 현실성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중 항해 가능성이 점차 현실적인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단순히 얼음이 감소한다고 자동적으로 상업항로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항로의 지배 구조, 운항 인프라, 경제성, 규제·제재, 환경 리스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상용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세 가지 루트(NWP, TSR, NSR) 중 러시아 연안을 따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러시아가 통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북동항로(NSR)가 상업적 개발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경로로 평가된다.

4.1 상용화 현실성

자연조건(해빙 및 항해 기간의 확대)은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해빙 가속화는 북극 접근의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향후 계절적 운항을 넘어 연중 항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지만, 자연조건 개선만으로 상용화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운항 인프라(쇄빙선, 항만, 수송체계)는 상용화의 현실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쇄빙 역량과 항만·배후 인프라를 확충하고, 8대 거점지대 지정과 같은 거점 전략을 통해 항만 개발과 배후 개발을 결합한 ‘통합 허브’ 구상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실제 운항에서는 쇄빙 LNG선과 같은 핵심 선박·장비 확보 여부가 병목으로 작동하며, 이는 운항 안정성과 물류 신뢰성 저하로 직결된다.

경제성(화물·화주 기반, 거리 대비 비용, 신뢰성)은 상용화의 결정 요인이다. 북동항로 물동량의 증가 추세는, 북극 자원 개발과 결합될 때 항로 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NSR은 ‘수에즈 대체 항로’라기보다 러시아 북극권의 자원 개발·수출 체계와 결합해 성장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규제·제재(특히 2차 제재)는 상용화의 현실성을 단숨에 제약하는 변수다. 러시아가 북극 개발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키더라도, 전쟁 이후 강화된 제재는 자본·기술·선박 조달을 가로막고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를 급격히 높인다. 그 결과 ‘가능성(해빙)’과 ‘현실성(제재·금융·보험·선박)’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NSR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환경·운영 리스크(동토층 융해 등)는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상용화의 속도뿐 아니라 지속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극권 개발이 심화될수록 시설 피해, 유지비 상승, 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요컨대 북극항로 상용화의 현실성은 ‘해빙’이라는 단일 변수의 결과가 아니라, “인프라 + 경제성 + 규제·제재 + 환경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함수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결합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러시아 NSR이며, 국가별 전략 차이는 ‘어느 변수를 우선적으로 장악·관리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의 차이는 단순한 참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재·인프라·수요라는 현실 변수에 대응하는 수단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북극 접근 전략을 협력 가능 분야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4> 북극 접근 전략 비교(한·중·일)

협력 분야	일본 및 중국의 사례	한국의 전략 및 방향성
에너지 지	중국은 야말 프로젝트 지분 및 자금 적극 투자	현재 서방 제재 동참으로 직접 참여는 보

분 참여	일본은 아틱 LNG 2 10% 지분을 확보했으나, 미국 제재로 LNG 수송에 난항을 겪고 있다.	류, 종전 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편입 기회 모색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중국 업체가 FLNG 공장식 플랜트와 쇠빙 모듈 부분 건조 대행 일본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간접투자(기술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성 탐색	최고 수준의 극한용 쇠빙선 건조 역량을 무기로, 제재 완화 시 기술 초격차를 앞세운 최우선 수주 복원
항만 및 물류 인프라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해 물류 거점과 배후도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아틱 LNG 2 등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자국으로 수송하며 운송·환적 관련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일본은 캄차트카에 LNG 환적센터를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로 잠정 중단 상태	부산항의 강력한 환적망(세계 2위)을 지렛대로 삼아 동북아시아 북극 해상 물류 거점 허브 입지 선점

4.2 한국의 참여 가능성

앞서 살펴본 북극항로의 상용화 여건과 주변국의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 LNG선 및 극지 특수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여 NSR 운항의 핵심 병목(선박·기술)을 해소할 잠재력이 있다. 둘째, 부산항의 환적망과 IT 기반 물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종점형 허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아라온호를 포함한 연구 기반과 오픈서버 활동을 통해 협력의 신뢰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이 비교우위로 제시된다.

반면 약점 또한 명확하다. 비북극권 국가로서 제도적 발언권이 제한되며, 제재 환경에서는 민간 단독의 투자·거래가 2차 제재 리스크로 인해 급격히 위험해진다. 또한 상업 운항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운항지원 체계가 아직 산업적 스케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도 제약으로 남는다.

기회 요인으로는 해빙 확대와 북극항로의 장기적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기술·물류·안전” 영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규범 형성 과정 참여가 국익 반영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위협 요인으로는 러시아·캐나다 등의 내해화 및 통항료·규제 리스크, 중·러 밀착과 신냉전 구도 심화로 인한 외교·경제적 딜레마, 환경 규제 강화(HFO 등)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앞선 1-3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러시아의 북극 개발의 현실은 (1) NSR을 러시아의 관할·통제 하에 두려는 거버넌스의 강화, (2) LNG를 한 축으로 한 자원개발의 지속 의지, (3) 제재와 그 파급(기술·선박·보험·물류 병목)으로 인해 계획 대비 성과가 크게 제약되는 구조로 요약된다. 따라서 한국의 북극항로 참여 전략은 직접적인 대규모 자본·지분 투자보다는, 제재 준수 범위 내에서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기술·운항 서비스·표준·디지털 운항지원·안전·환경 대응 중심의 ‘선별적·간

접적 참여'로 설계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서비스형 참여 전략을 러시아의 '북극 8대 거점지대'에 적용하면, 거점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력 가능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5> 8대 거점지대별 (특성 × 참여 분야 예시)

8대 거점지대 (특성)	운항지원·디지털 (데이터/시스템)	항만·물류 운영 (운영기술/허브)	안전·환경 (규범/훈련/대응)
1. 콜라(무르만스크: 부동산·환적, 채빙선, 통합 인프라)	빙해기상항로 데이터 서비스, 항만-선박 연계 디지털 관제	스마트 터미널 운영, 환적 효율화(혼잡/야드/스케줄)	구난비상대응 훈련, 오염사고 대응 프로토콜/장비 운영 표준
2. 아르한겔스크(철도 연결, 벌목·선박제조 클러스터)	항만-철도 연계 데이터 표준, 공급망 추적(목재벌크)	복합운송(철도←항만) 운영 최적화, 창고·보관 운영	산업안전·혹한 작업 안전, 환경 원산지/ESG 준수 체계(데이터 기반)
3. 네네츠(대륙붕 잠재, 항구 건설 필요)	해양환경 모니터링(원격센서/데이터), 항만 운영 디지털 설계	'항구 건설' 자체 투자보다는 운영설계·유지관리(Asset management) 자문/시스템	환경영향 최소화 기준, 오염대응체계(훈련·매뉴얼) 구축
4. 보르쿠타(탄광·석유가스 생산지)	내륙 운송(철도 등) 안전관제, 극한환경 작업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원자재 물류 운영(보관/적재/수송) 효율화 "운영기술" 중심	산업재해 예방·훈련, 환경 모니터링(동토층 영향 포함)
5. 야말로-네네츠(가스 공급·수출/운송 인프라 활발, LNG 핵심)	"운항지원 산업화": 빙해기상항로 데이터, 디지털 운항지원(신뢰성 제고)	LNG/에너지 물동량 기반 항만 운영 노하우 축적(단, 제재 준수 전제)	안전·환경 규정 대응, 교육·훈련(제재 하 직접 투자 대신 역량 제공)
6. 타이미르-투르한(두딩가, 비철금속·내륙수운)	내륙수운-항만 통합 관제, 운송 스케줄링/기상 연동	벌크/광물 물류 처리 효율화(하역·저장), 내륙수운 연계 운영	시설 안전진단(동토층 리스크 포함), 환경 리스크 모니터링
7. 세베로-야쿠츠크(레나강-딕시 연계, 자원개발)	하천-해상 복합운송 디지털 관제, 통합정보시스템 접점 협력	복합운송 노선 설계/운영(레나강←NSR), 물류 데이터 표준	혹한·원격지 안전관리, 비상대응 훈련·프로토콜
8. 추코트카(아태 경로 이점, 혹독 기후로 개발 제한)	원격 통신·관제, 기상·해상 상황 감시(운영 데이터)	소규모 거점의 운영 효율화(장기항로보다는 '레질리언스' 중심)	극한 기후 안전·구난, 환경사고 대비(훈련·장비 운용 표준)

4.3 단계적 진입 방향

한국의 현실적 참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단기에는 제재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항만·물류·기술역량 축적과 제도적 준비에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혀야 한다. 다음으로는, 외교 채널과 공적 보증 등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 조선·운항 분야에서 경쟁력을 재가동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부산항의 허브화와 정기 운항 체계,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 내 협력 모델을 결합해 "기술+물류+규범"을 동시에 잡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NSR 상용화의 현실성은 복합 변수의 함수이며,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그 변수들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점(쇄빙선·항만·운항지원·과학외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다.** 5 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성 평가와 참여 가능성을 토대로, 정책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종합 정리한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북극항로의 부상은 단순한 항로 다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물리적 접근성을 재구성하면서 국제 물류·에너지 질서의 일부를 재배열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빙 감소는 북극해를 ‘접근 불가능한 자연 방벽’에서 ‘조건부 접근 가능한 해상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의 연중 항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상승하고 있다. 다만 북극항로의 상업적 상용화는 자연조건의 변화만으로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결과가 아니다. 북극항로가 지속 가능한 국제 운송회랑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항 인프라의 성숙, 화물·화주 기반의 안정성, 규제·제재 환경의 예측 가능성,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 등 복수의 요인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현실성’을 구분하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주요 루트 중 북동항로(NSR)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NSR이 러시아 연안을 따라 기존 쇄빙 역량과 항만·배후 인프라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항로 구간의 상당 부분을 제도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운항의 규칙과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동량의 증가 추세는 NSR의 활용이 자원개발과 결합될 때 ‘항로 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NSR의 상용화는 단순한 ‘수에즈 대체’가 아니라, 러시아 북극권 개발(특히 에너지 수출)과 결합된 운송체계의 진화라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

NSR의 현실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다섯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해빙과 항해 기간의 확대는 상용화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둘째, 쇄빙선·특수선박·항만·운항지원체계 등 운항 인프라는 상용화의 충분조건을 구성한다. 셋째, 화물·화주 기반과 비용·신뢰성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경제성은 항로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넷째, 규제 및 제재(특히 2차 제재)는 투자·금융·보험·결제·선박조달 등 핵심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상용화를 급격히 제약할 수 있다. 다섯째, 동토층 융해와 같은 환경·운영 리스크는 인프라의 장기 유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안전 문제를 증폭시켜, 상용화의 속도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NSR은 ‘잠재력의 확대’와 ‘제약의 심화’가 병존하는 공간이며, 국가별 전략의 차이는 이러한 현실성 변수들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경우, 북극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전략 문서의 변천과 제도화 과정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러시아는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통해 국가안보, 사회·경제 개발, 과학기술, 환경,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목표체계를 설정하고, 이후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을 연장·수정하며 장기적 개발 구상을 유지해 왔다. 또한 8대 거점지대 지정과 같은 공간전략을 통해 항만·인프라 투자

와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거점-운송회랑-수출체계’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강화된 대러 제재는 기술·자본·선박·보험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를 압박하면서 계획의 현실적 제약을 확대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제재 지정과 2차 제재 위험의 상시화는, 협력의 문제를 ‘경제성’보다 ‘거래 가능성’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북극 개발의 추진은 지속되더라도, 상업적 상용화의 안정적 경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중·일의 접근은 동일한 기회 구조(해빙 확대) 속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으로 분화된다. 중국은 지분·물량·운영경험을 축적하여 공급망과 데이터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제재 환경에서도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현실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본은 개발 지분 참여와 환적 거점 구상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해 왔으나, 제재 환경의 악화는 리스크 노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속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거대 자본력이나 일본의 보수적 접근과 차별화하여, 극지 특수선박 건조 역량과 환적 인프라라는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재 국면이 완화되는 향후를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쇄빙 LNG선 건조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핵심 장비의 최우선 수주 지위를 복원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세계 2위 환적 항만인 부산항의 강력한 입지와 IT 기반 물류 운영 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동북아시아 북극 해상 물류의 대체 불가능한 종점형 거점 허브로 격상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와 2차 제재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민간 단독의 성급한 직접 투자는 지양하고 국가 차원의 정교한 딜레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비록 당장의 직접적인 에너지 지분 참여나 자본 투자는 어렵더라도, 아라온호를 비롯한 과학 연구 인프라와 오피서버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다자간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순한 북극항로 이용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과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국익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직접투자 중심의 자원개발 참여보다, 조선·항만·물류·연구 기반이라는 비교우위를 축적해 온 국가로서, 북극항로 상용화 과정에서 ‘병목 해소형 기여’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즉 한국은 쇄빙 LNG선 등 극지 특수선박 건조 역량을 통해 운항 인프라의 핵심 요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과 스마트 물류 운영 능력을 통해 동북아 종점형 허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오피서버 활동을 통한 거버넌스 참여와 과학외교 자산은 협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규범·안전 협력으로 확장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참여는 제재라는 구조적 제약을 전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제재 환경이 지속되는 한, 민간 기업의 단독 판단에 기반한 고위험 직접투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며, 금융·보험·결제 불확실성이 상업성 논리를 상쇄할 수 있다. 또한 비북극권 국가로서 제도적 발언권의 한계는, 단순 참여 의지만으로 협력의 조건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시범 성과가 상업 운항지원체계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는 정책-산업 간 연결고리의 취약성은 ‘참여

역량의 체계화'라는 과제를 남긴다. 따라서 한국의 북극 참여는 “지금 당장 사업을 확대하는가”가 아니라, “상용화 조건이 성숙했을 때 즉시 실행 가능한 국가 역량을 갖추는가”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이때 합리적 경로는 제재 준수 하에서 참여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외교·제도·산업을 동시 정렬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정책 제언:

- ✓ 제재 준수·리스크 대응: 정부 차원의 준법 가이드라인/매뉴얼 정교화, 분쟁·제재 리스크 대응 체계 상시화.
- ✓ 제도 기반: 북극항로/북극권 진출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장치 마련(민간의 불확실성 축소).
- ✓ '서비스형 참여' 강화: 부산항 환적·빙커링·저장·디지털 물류 역량 확충, 항만·물류 서비스 중심의 참여 경로 확보.
- ✓ 운항지원 산업화: 빙정보·기상·항로 데이터, 안전 프로토콜, 디지털 운항지원 등 연구 성과를 표준화·사업화로 연결.
- ✓ 외교·공적 보증: G2G 채널을 조기 복원/유지하고, 공적 금융·보험·보증 등 안전장치를 통해 거래 가능성을 제도화.
- ✓ 산업 경쟁력 유지: 쇄빙 LNG선 등 극지 특수선박 기술 우위 유지·고도화, 제재 완화 국면에서 즉시 복귀 가능한 공급망/인증/인력 체계 정비.
- ✓ 규범·안전 협력 확대: 오픈버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환경·표준 영역의 협력 성과를 축적하고 신뢰자산을 제도적 영향력으로 전환.

상기 제언들은 단일 사업의 성과를 겨냥하기보다, NSR 상용화의 현실성 변수를 한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즉 해빙 확대라는 외생적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상용화는 인프라·경제성·규제/제재·환경 리스크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국은 직접투자 중심의 고위험 경로가 아니라 '기술·물류·안전·규범'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정책의 우선순위는 (1) 제재 준수 하에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여 민간의 회피 비용을 줄이고, (2) 부산항과 운항지원 역량을 통해 상용화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높이며, (3) 외교·공적 보증을 통해 거래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데 놓여야 한다. 이러한 경로는 단기적으로는 '준비'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NSR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기능(운항 인프라의 병목 해소, 환적 허브의 운영, 안전·표준의 정착)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북극 참여 전략은 '참여 여부'의 이분법을 넘어, 제재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단계적 역량 축적과 제도 설계를 통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즉시 실행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정식화되어야 한다.

чук치 반도 우엘렌 상아 조각 공방의 역사와 사회적 변화

이현경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чук치반도의 북동쪽 끝, 북극해와 베링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우엘렌(Uelen)은 수 세기 동안 시베리아 원주민 예술의 중심지였다. 이곳의 상아 및 골각 예술은 단순한 수공예를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해 온 चुкчи(Chukchi)와 에스키모(Eskimo)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기록하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다. 특히 1931년 설립된 우엘렌 상아 공방은 원주민의 전통적 예술 양식이 근대적 생산 체계와 결합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오늘날 우엘렌 주민 3명 중 1명이 골각 공방과 연관된 일을 할 정도로, 이 예술은 지역 공동체의 경제와 정체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다. 이에 근대 이전부터 러시아에서는 민족지학적인 측면에서 우엘렌 상아 공방과 चुкчи-에스키모 골각 예술에 관한 조사가 있어왔고, 초창기 단순한 민족학적 기록에서 시작하여 근대 이후 지금까지 예술사적 분석, 고고학적 기원 탐구,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 연구로 그 범위를 넓혀왔다.

초기 연구는 20세기 초 제섭 북태평양 탐사(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탐사대에서 보고라즈(V. G. Bogoraz)는 चुкчи 및 에스키모 민족의 신화와 민담, 종교적 의례를 수집하며 골각 예술의 제작 배경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후 조형적 서사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¹⁾ 미술사적 접근은 1930년대 이후 바실렌코(V. M. Vasilenko)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골각 예술을 민족과 원시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또한 공방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고르분코프(A. L. Gorbunkov)와 라브로프(I. P. Lavrov)는 현장에서 장인들을 지도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기술이 현대적 공방 체제 안에서 어떻게 전문 예술로 변모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미술을 폭넓게 연구한 이바노프(S. V. Ivanov)는 우엘렌 조각의 형태적 특징을 체계화했다. 이 중 우엘렌 공방에 파견된 미술사학자 미틀란스카야(T. B. Mitlyanskaya)는 우엘렌 골각 예술만을 단독 주제로 다룬 전문서를 남겼고, 여기서 그는 장인 개인별 창작 특성을 세밀하게 조명했다.²⁾ 최근 브론슈테인(M. M. Bronstein) 등은 고대 베링해 문화의 유물과 현대 우엘렌 작품 사이의 2,000년이 넘는 기술적·미적 연속성을 증명했다. 또한 티시코프(V. A. Tishkov)는 개인소장 자료를 토대로 생태적 맥락에서 예술적 상

1) В. Г. Богораз, "Чукотские рисунки," *Сборник в честь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ия Д.Н.Анучина* (СПб.: [S.n.], 1913); В. Г. Богораз, *Чукчи*. Ч. 1-2 (Л.: [S.n.], 1934-1939).

2) В. М. Василенко, *Северная резная кость(Холмогоры, Тобольск, Чукотка)* (М.: [S.n.], 1947), с. 107.; А. Л. Горбунк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сторезный промысел на Чукотке,"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6 (1936), с. 87-93.; С. В. Иванов, *Материалы п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родов Сибири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М.: Л.: Наука, 1954), с. 840.; Т. Б. Митлянская, *Художники Чукотки* (М.: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1976), с. 208.

징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텔마흐(K. I. Stelmakh)는 마가단 지역 박물관의 소장 경위를 분석하며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자료를 바탕으로 우엘렌 공방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피고, 사회적 변화가 예술적 양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후 우엘렌 공방과 상아 조각의 의의를 논해보고자 한다.

II. 시대별 주요 사건 및 역사적 맥락

우엘렌 상아 예술의 역사는 고대 기원기, 근대 전환기, 그리고 소련시기 공방 체제의 확립과 발전기, 탈소련 이후 현대적 모색기로 구분할 수 있다. 축치반도 우엘렌 상아 공방은 고대 북극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2차 세계대전과 소련 붕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 속에서 기술적·경제적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양상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약 2,000년 전 고대 기원의 역사

약 35,000년 전 인류가 처음 축치반도에 도착한 이래, 약 12,000년 전 베링 지교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안가에 정착한 이들은 해양 포유류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것이 골각 예술의 기원이 되었다. 골각 예술은 1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고대 베링해 문화 시기에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우엘렌 인근의 에크벤(Ekven) 유적 등에서 당시 이미 고도로 발달한 예술적 체계를 입증하고 있다.⁴⁾

이 시기에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입체적인 동물 및 인물 조각으로 만들어진 부적(amulets)이 등장했다. 고대인들은 바다코끼리 상아를 재료로 하여 북극곰, 바다표범, 새 등의 해부학적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도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작살 축, 부적, 칼 손잡이 등에 정교한 곡선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냥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주술적·마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약 2,000년 전부터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세밀한 천공 작업과 복잡한 선 조각이 가능해졌다.⁵⁾ 고대 장인들은 바다코끼리와 북극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은 작품 속에 생동감 있게 투영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축치와 에스키모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서기 1000년경 푸눅(Punuk)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부드러운 곡선 문양은 점차 직선적이

3) М. М. Бронштейн, И. Л. Карахан, Ю. А. Широков, *Резная кость Уэлен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Чукотки* (М.: Святигор, 2002), с. 98.; В. А. Тишков, *Тундра и море. Чукотско-эскимосская резьба по кости* (М.: Индрик, 2008), с. 160.; К. И. Стельмах, "Искусство уэленских мастеров. Коллекция чукотско-эскимосской резной и гравированной кости в Магада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И 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Урал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юнь, 2021), с. 144.

4) В. А. Тишков, *Тундра и море Чукотско-эскимосская резьба по кости* (Москва: Индрик, 2008), с. 15.

5) М. М. Бронштейн, И. Л. Карахан, Ю. А. Широков, *Резная кость Уэлен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Чукотки* (Москва: Святигор, 2002), с. 5.

고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변화하였다.⁶⁾ 이와 같은 양식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고대의 상아 조각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북극이라는 극한의 자연과 소통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위상을 확인하려 했던 종교적·예술적 의례의 결과물들을 알 수 있다.

2. 17세기~19세기 전통적 수요와 기념품 예술의 태동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바다코끼리 엄니와 고래 뼈는 척박한 북극 환경에서 도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였으며, 수요는 주로 작살 축, 성공적인 사냥을 위한 부적 등 원주민들의 실생활 및 종교적 의례용품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의 포경선과 상인들이 축치반도에 빈번하게 출입하게 되면서 공급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외부인들이 유입되면서 과거 원주민 사회에는 필요없었던 파이프, 나이프 손잡이, 장식용 핀, 액자 틀 등 서구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공예품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다.⁷⁾ 외부인들은 정교한 상아 조각들을 이국적인 기념품으로 인식하여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의례용 골각 예술이 기념품 예술로 변모되는 배경이 되었다. 외부인에게는 고대의 상징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보다, 북극곰, 바다코끼리와 같은 동물을 정교하게 묘사한 조각품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 또한 상아 표면에 원주민들의 이국적인 일상과 사냥 장면을 담은 서사적 판각(narrative engraving) 양식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⁸⁾

3. 1931년 우엘렌 상아 공방의 설립과 그 배경

1920년대 소련 정부는 소수민족의 전통 공예를 국가적 문화 정책의 틀 안에서 육성하기 시작했다. 1931년 설립된 우엘렌 공방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로, 원주민 장인들을 하나의 조직적인 생산 체계로 통합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졌다.⁹⁾ 공방 설립의 핵심 인물은 지역의 덕망 높은 사냥꾼이자 소비에트 시대의 권위자였던 테그린케우(Tegrynkeu)였으며, 그의 형제이자 천부적인 조각가인 부쿠부타긴(Vukvutagin)이 공방의 첫 의장을 맡아 장인들을 결집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예술사학자 알렉산드르 고르분코프(A. L. Gorbunkov)가 예술 고문으로서 현대적 스케치 기법을 도입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하며 공방의 기틀을 닦았다.¹⁰⁾

러시아 미술사학자인 고르분코프는 본토에서 수년 간 북방 민족의 문화를 연구한 후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동안 축치반도에 파견되어 축치 조각을 깊이 연구한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우엘렌(Uelen), 데즈네프(Dezhnev), 로리노(Lorino) 지역에 소규모 원주민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방 체제의 기틀을 닦았다. 고르분코프는 축치 장인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조각이나 판각 전 미리 스케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현대 미술가들에겐 자연스러운 구상 방식인 스케치나 에스키스의 도입은 전통적인 조형 방식을 바꾸어 더욱 깊이 있

6) М. В. Хабаров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Чукотки* (Л.: Художник РСФСР, 1978), с. 32.

7) М. М. Бронштейн, И. Л. Карахан, Ю. А. Широков(2002), op. cit., с. 4.

8) Ibid., с. 23.

9) С. Л. Чернышова, "Особенности косторезного искусства Чукотки," *Человек.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е* 3(33) (2019), с. 226-227.

10) Т. Б. Митлянская, *Художники Чукотки* (Москв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1976), с. 49.

는 조형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사냥꾼이자 장인들의 제작 방식은 대상이 떠오르면 즉시 본 재료에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 작업 전 스케치를 통해 구도를 미리 구상하게 됨으로써 평면적인 상아 표면 위에서도 공간적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구성적 해법을 찾게 했으며, 이는 형상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면서도 공간감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스케치 도입 이전의 장인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별적이고 고립된 이미지들을 새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스케치에서 사전 구상 단계를 통해 작품에 발단, 전개, 결말이 있는 북부의 서사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상아 엄니 안에 툰드라와 바다, 사냥과 생활의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다층적인 서사 공간이 형성되었다.¹¹⁾ 이에 더해 고르분코프는 조각가와 판각가들이 모여 작품의 주제를 함께 논의하는 집단 창작 방식을 독려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때로 무언극(pantomime)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찾아내도록 유도했다. 나아가 그는 노련한 장인들과 젊은 세대를 결합하여 기술 전수를 도왔으며, 특히 그가 발굴한 재능 있는 판각가 부쿠볼(Vukvol, 1914-1942)은 이후 우엘렌 공방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¹²⁾

고르분코프 이후에도 소련 정부는 예술 아카데미 소속의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공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그 중에서 1950년대 중반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이고르 라브로프(I. P. Lavrov)는 우엘렌 공방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며 공방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그는 기존의 단순한 동물 묘사에서 벗어나 축치와 에스키모의 민담과 신화를 주제로 한 서사적 판각을 적극 장려했다. 특히 베라 엠쿨(Vera Emkul, 1919-1985)과 같은 여성 장인들에게 현대적인 구도와 서사 기법을 지도하여 작품의 문학적 깊이를 더하게 하였다. 또한 조각 작품의 받침대에 판각을 새기는 입체-부조 복합 형식을 만들었다. 받침대에 그려진 판각은 입체 조각의 테마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여, 작품 전체를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다차원적인 서사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¹³⁾ 모스크바 공예산업 연구소에서 파견된 미틀란스카야와 카라한은 1967년부터 약 20년 동안 우엘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장인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들은 장인들에게 고고학 발굴 유물을 소개하여 고대 문양을 현대 작품에 재해석해 넣도록 도왔다. 이들의 지도는 우엘렌 예술이 19세기의 상업적 기념품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민속 예술로 격상되는데 크게 기여했다.¹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온 이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미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예술 학교의 기틀을 세웠다. 이들의 영향으로 우엘렌 장인들은 국가로부터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는 등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작품들은 모스크바의 트레타코프 미술관이나 동양박물관 등 세계적인 전시관에 소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시베리아 원주민 예술이 현대적 시장 경제와 국가 시스템 속에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¹⁵⁾

11) М. М. Бронштейн, И. Л. Карахан, Ю. А. Широков(2002), *op. cit.*, с. 7, 9.

12) *Ibid.*, с. 6-7.

13) *Ibid.*, с. 28-29.

14) *Ibid.*, с. 10.

15) В. А. Тишков(2008), *op. cit.*, с. 147.

4. 1940년대 대조국전쟁의 시련과 장인들의 전사

1941~1945년 제2차 세계대전(대조국전쟁) 시기는 공방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 축치반도와 본토 사이의 물자 보급이 거의 끊기면서 식량난이 심각해졌고, 많은 조각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사냥과 순록 방목에 다시 투입되어야만 했다. 특히 공방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손실이 컸는데, 대표적으로 유망한 장인이었던 부쿠볼이 전쟁 중 전사하면서 공방 공동체에 큰 슬픔을 안겼다. 전쟁 직후인 1945년, 레온티예프(V. Leontyev)가 재료 보급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엘렌 프롬콤비나트(Uelen Promkombinat)를 설립했으나 경제적 적자를 면치 못해 1948년 폐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판매된 예술품들이 당국의 결정에 의해 파괴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¹⁶⁾

5. 1950년대~80년대 기술적 황금기와 경제적 안정기

1950년대 중반, 모스크바의 예술 감독 이고르 라브로프(I. Lavrov)가 부임하고 새로운 공방 건물이 지어지면서 우엘렌 조각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¹⁷⁾ 기술적으로는 단일 조각 위주에서 벗어나 여러 인물과 동물이 어우러진 다층적·서사적 조각 그룹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조각의 받침대에 정교한 판각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기법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베라 엠쿨 이후 여성 장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냥 문화에서 벗어나 민담과 신화를 주제로 한 풍부한 서사 예술로 확장되었다.¹⁸⁾

우엘렌 공방의 가장 독보적인 기술은 채색 판각이다. 장인들은 엄니 표면에 발리뉴(Valignu)라 불리는 금속 도구를 사용해 섬세한 선을 긋고, 그 틈에 채색 도구를 문질러 색을 입힌다. 이 방식은 1950년대 이후 다채로운 안료를 사용하면서 더욱 발전했으며, 툰드라와 바다의 풍경을 한 작품 안에 대칭적으로 구성하는 독특한 구도를 형성했다. 공방에서 제작된 북극곰, 바다코끼리, 고래 조각은 해부학적 정확성과 더불어 동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여러 인물과 동물이 어우러진 조각 군상은 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서사성을 극대화한다.¹⁹⁾

이 시기 우엘렌 예술은 소련 국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민속 예술품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재료 공급과 국가적 판로를 확보했으며, 장인들은 공훈 예술가 칭호와 훈장을 받는 등 사회적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훈 예술가들의 작품은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동양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²⁰⁾ 소련 시기 확립된 우엘렌 상아 공방 시스템은 시베리아 원주민 예술을 단순한 가내 수공업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문 예술 산업으로 격상시킨 독특한 체계였다. 상아 조각은 공방 설립 이전에는 사냥의 비수기에 행해지던 부업 수준이었으나, 소련의 생산

16) Ibid., c. 8.

17) А. К. Ефимова, Е. Н. Клитина, *Чукотское и эскимо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из собрания Загор. гос. ист.-худож.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Альбом фот.* Р. Э. Бениаминсона, В. И. Почерова,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ник РСФСР, 1981), c. 20.

18) В. А. Тишков(2008), op. cit., c. 62.

19) А. К. Ефимова, Е. Н. Клитина(1981), op. cit., c. 33.

20) В. А. Тишков(2008), op. cit., 책 전체의 작가 소개 섹션 참고.

시스템 안에서 이제 토착민족들의 주요 직업이 되었다.

6. 90년대 이후 소련 붕괴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

1991년 소련 붕괴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공방에 다시 한번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다. 축치반도가 마가단주에서 분리되면서 기존의 행정·보급 네트워크가 약화되었고, 국가적 지원이 급감하여 재료 수급, 작품 수집과 판매가 어려워졌다.²¹⁾ 이에 따라 장인들은 상업적 복제라는 현실적 요구와 전통의 깊이 있는 탐구라는 예술적 지향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많은 장인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과거의 유명 작품을 복제하는데만 주력하였고, 일부 장인들만이 고대 베링해 문화의 상징적 미학을 재해석하며 예술적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다.

소련 시기 민속공예는 독일과 같은 서구의 발전 방식과는 판이한 경로를 걸었으며, 이는 현재 러시아 공예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결정지었다. 소련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규모 가내 수공업과 독립적인 장인 계층을 부르주아적 요소로 간주하여 행정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통제하의 산업 복합체인 프롬콤비나트로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공예는 도시 기반의 거대 공장 시스템에 예속되었고, 장인들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노동자 혹은 국가 공훈 예술가로 격상되었으나 자생적인 소상 공인으로서의 기반은 상실했다. 반면 독일, 북유럽과 같은 서구에서는 장인들의 전문적인 협동조합 전통을 유지하며, 이들이 현대적 기술을 도입한 혁신적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도록 도왔다.²²⁾

소련 시기 국가가 공방을 강제적으로 통합하면서 우엘렌 공방 또한 거대 국가의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생에 대한 큰 걱정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식 시스템은 서구의 사례처럼 전통 공방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현대적 혁신 사이의 유전적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현재 러시아의 많은 민속 공예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박물관 전시용 예술 혹은 저가 기념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다수 국가의 공예 분야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서구의 몇몇 나라들에서 자생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된 공예의 양상과는 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인 면에서 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비판 중에 하나는 소련의 공식 예술 교육이 우엘렌 공방의 토착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미감을 훼손했다는 의견이다. 소련이 고수한 사실주의 양식이 우엘렌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상징성과 공간 감각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는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획일화시키는 방식인 것은 사실이다.

7. 2010년대 이후 현재, 공방의 경제적 유지 기반

오늘날 우엘렌 공방을 유지시키는 경제적 기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광 및 크루즈 산업으로, 매년 우엘렌 해안에 정박하는 호화 북극 크루즈 관광객들은 공방 작품의 중요한

21)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мыслов Чукотки,” <http://remeslachukotki.edu87.ru/history-of-the-development-of-folk-arts-and-crafts-of-chukotka> (검색일: 2026.8.11).

22) Андрей Келлер, “Городское ремесло в контексте теор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становка проблемы,” *Quaestio Rossica* Vol 5. No 1. (2017), DOI: 10.15826/qr.2017.1.208, с. 22.

직접 구매자이다.²³⁾ 19세기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고래잡이 상인들이 공방 작품의 주 고객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크루즈 관광이 공방 작품의 강력한 직접 구매층을 형성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게 하고 있다. 이는 우엘렌 상아 조각이 축치반도를 방문하게 하는 비지팅 카드가 되게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속 예술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을 기반한 상업적 수요는 예술적 독창성보다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과거의 성공적인 작품들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장의 요구에 맞춘 저렴한 모조품이 유통될 위험이 커지면서, 전통의 깊이 있는 탐구라는 예술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²⁴⁾ 둘째, 지역의 문화 인프라의 수요로 2005년 아나디리(Anadyr)에 개관한 축치반도 유산(Heritage of Chukotka) 박물관과 같은 현대적 전시·판매 센터가 지역 내 안정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가치를 재인정 받으면서 오는 시너지 효과로 마가단에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골각 예술 페스티벌 등을 통해 우엘렌 예술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박물관 소장 및고가 수집가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²⁵⁾

III. 결론

과거 축치반도의 상아 조각은 샤머니즘적 보호와 사냥의 성공을 위한 주술적 수단이었으나, 공방 체제 설립 이후 예술적 감상과 상업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속 공예”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은 토착 민족의 예술이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소련 시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파견된 외부 전문가들의 개입이 토착 민족 고유의 미감을 변용시켰다는 비판도 있으나, 우엘렌 공방은 오히려 전통 기술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동시에 축치와 에스키모의 전통 신화와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문화적 저장소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도 고대의 기술을 잃지 않고 현대적 서사와 결합한 점은 소련 붕괴 이후 박물관 소장 유물로 남아 원주민 사회 속에서 지속성을 잃어버린 사례들과 비교할 만한 성과이다.

우엘렌 상아 공방의 90년 역사는 북극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존해 온 시베리아 예술의 저력을 보여준다. 공방은 고대의 마법적 전통을 현대적인 예술 양식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축치와 에스키모 민족의 정신적 정체성을 공고히 해왔다. 비록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세대교체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엘렌의 상아 예술은 여전히 북극의 삶을 가장 정교하게 기록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 문헌]

Богораз, В. Г., *Чукчи*. Ч. 1-2, Л.: [S.n.], 1934-1939.

23) М. М. Бронштейн, И. Л. Карахан, Ю. А. Широков(2002), op. cit., с. 4.

24) Андрей Келлер(2017), op. cit., с. 26.

25) Чернышова С. Л.(2019), op. cit., с. 233.

- Бронштейн, М. М., Карахан, И. Л., Широков, Ю. А., *Резная кость Уэлена.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Чукотки*, М.: Святигор, 2002.
- Василенко, В. М., *Северная резная кость (Холмогоры, Тобольск, Чукотка)*, М.: [S.n.], 1947.
- Ефимова, А. К., Клитина, Е. Н., *Чукотское и эскимо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из собрания Загор. гос. ист.-худож.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Альбом фот.* Р. Э. Бениаминсона, В. И. Почерова, Ленинград: Художник РСФСР, 1981.
- Иванов, С. В., *Материалы п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родов Сибири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М.: Л.: Наука, 1954.
- Митлянская, Т. Б., *Художники Чукотки*, М.: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1976.
- Тишков, В. А., *Тундра и море. Чукотско-эскимосская резьба по кости*, М.: Индрик, 2008.
- Хабарова, М. В.,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Чукотки*, Л.: Художник РСФСР, 1978.
- Богораз, В. Г., "Чукотские рисунки," *Сборник в честь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ия Д.Н.Анучина*, СПб.: [S.n.], 1913.
- Горбунков, А. Л.,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осторезный промысел на Чукотке,"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6, 1936.
- Келлер, Андрей, "Городское ремесло в контексте теор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становка проблемы," *Quaestio Rossica* Vol 5. No 1. (2017), DOI: 10.15826/qr.2017.1.208.
- Стельмах, К. И., "Искусство уэленских мастеров. Коллекция чукотско-эскимосской резной и гравированной кости в Магада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Урал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юнь, 2021.
- Чернышова, С. Л., "Особенности косторезного искусства Чукотки," *Человек.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е* 3(33), 2019.
-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мыслов Чукотки," <http://remeslachukotki.edu87.ru/history-of-the-development-of-folk-arts-and-crafts-of-chukotka> (검색일: 2026.8.11).

18세기 제임스 쿡의 북극해 탐사 기록

이재혁
(북극학회)

1. 서양인들의 태평양 탐사

유럽사에서는 대략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주도한 대규모 해양 탐험과 신향로 개척이 이루어진 시대를 대항해시대(Age of Discovery/Exploration)으로 부른다. 이 시기는 유럽 국가의 함대가 전 세계 지역을 탐험하고 식민지화하며 정복한 시기였다. 특히 동인도로 가는 해상 항로의 개설과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합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유럽 식민지 개척 등 광범위한 해외 탐험은 국제 세계 무역에 박차를 가했다.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대서양 횡단,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항로 개척,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의 최초 지구 일주 시도 등의 대규모 탐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 등 새로운 대륙과 해양의 발견 및 탐험이 이루어졌고, 유럽 문화와 기술이 유럽 밖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신대륙 원주민 인구 급감 및 대규모 노예무역 등 폭력성과 우월주의를 수반하기도 했다. 나침반의 사용과 선박 설계의 발전이 이 시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었다.

스페인은 태평양에 도달한 최초의 유럽 강국으로, 주로 무역로 개척에 주력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 1519-1522)은 최초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한 탐험대(마젤란 해협 발견)의 지휘관으로, 그는 태평양을 향해하며 괌과 필리핀 일부 섬에 도달했으며, 이 바다에 '평화로운 바다(Mar Pacífico)'라는 이름을 붙였다. 알바로 데 멘다냐 이 네이라(Álvaro de Mendaña y Neira, 1567-1569)는 솔로몬제도와 마르키즈 제도 등을 발견하고 기록했고, 네덜란드 탐험대의 아벨 타스만(Abel Tasman, 1642-1644)은 태즈메이니아(그의 이름을 따 명명), 뉴질랜드, 통가, 피지 등을 발견하고 기록했다.

18세기에 들어서 태평양지역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들이 나타난다. 야코프 로게벤(Jacob Roggeveen, 1721-1722)은 이스터섬(라파 누이)을 유럽인 최초로 발견했고, 사모아 제도, 보라보라 등도 발견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탐험가들은 과학적 지식의 확대를 목표로 태평양을 광범위하게 탐험했다. 조지 앤슨(George Anson, 1740-1744)은 세계 일주 항해를 감행하며 태평양 항로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남겼고, 제임스 쿡 함대(James Cook, 1768-1779)는 세 차례의 항해를 통해 태평양 탐험을 완성했다. 그는 하와이 제도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해안선, 호주 동부 해안, 이스터섬, 통가, 뉴칼레도니아 등 태평양의 주요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탐사하고 지도화하여 근대 지리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의 탐험은 과학적 관찰을 중요시한 최초의 과학 탐험 항해로 평가받는다.

유럽인들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태평양 도서를 탐험한 근대 항해 경로는 주로 세 가지 목표(향신료 무역로, 미지의 남방 대륙 탐색, 북서항로 개척)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2. 제임스 쿡의 항해

제임스 쿡(James Cook, 1728년~1779년)은 18세기 영국의 탐험가, 항해사, 지도 제작자로,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세계지도의 거의 완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대한 지리적 지식을 제공하고 정교한 지도를 제작하여 영국의 식민지 개척에 크게 이바지했다.

첫 번째 항해(1768년~1771년)에서 타히티에서 금성 관측에 성공하고, 뉴질랜드 해안을 탐험하여 남북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호주 동해안에 도착하여 보타니 만(Botany Bay)을 발견하고, 이 지역을 '뉴 사우스 웨일스'라 명명하고 영국령임을 선포했다.

1772~1775년의 두 번째 항해에서 뉴칼레도니아, 노퍽섬, 사우스조지아섬,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등 다수의 섬을 발견하고 지도를 작성했다.

세 번째 항해(1776~1779)는 대서양에서 북극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찾는 것이 주 임무였다. 희망봉, 타히티를 거쳐 북태평양으로 항해하여, 1778년 유럽인 최초로 하와이제도(당시 샌드위치 제도)에 도착하였다. 이후 알래스카와 베링 해협을 통과하여 항해하여 북서항로를 탐색하려 했으나, 베링해협을 통과한 7일 후에 알래스카 북쪽의 아이시 콧(Icy Cape) 부근에서 빙산으로 인해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다시 하와이제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케알라케쿠아 만(Kealahakua Bay)에 다시 들렀다가 원주민과의 충돌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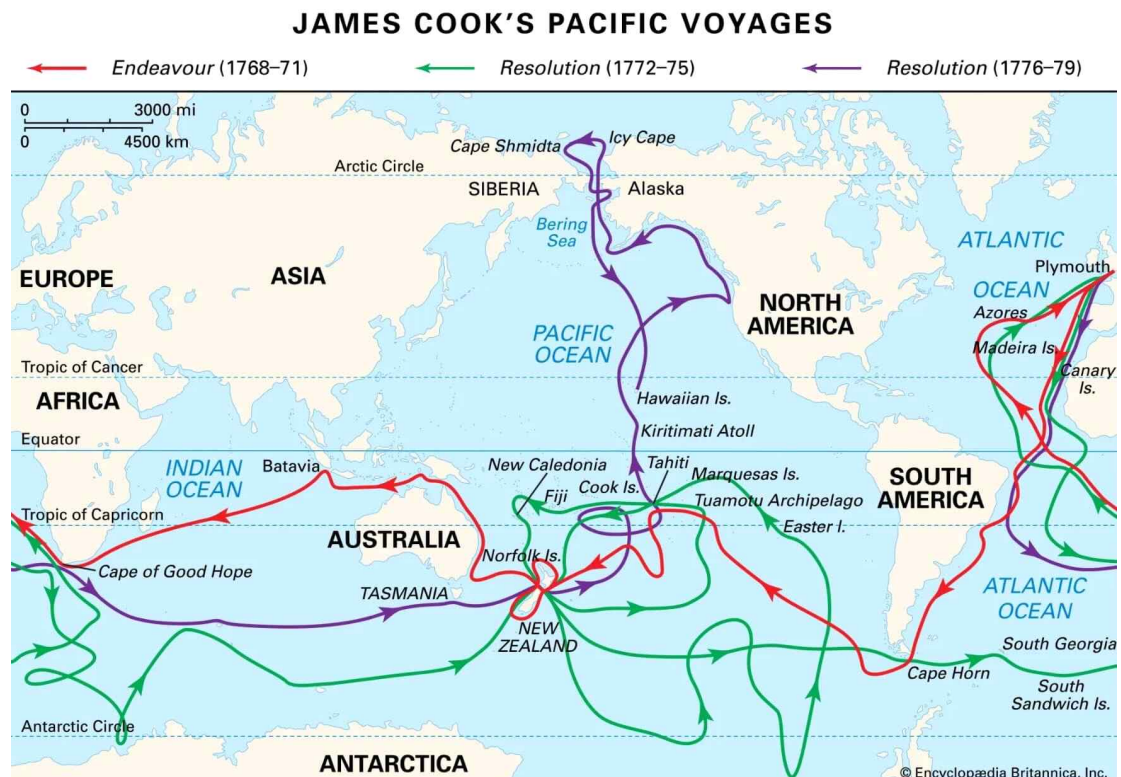
제임스 쿡 탐사를 통하여 뉴펀들랜드, 뉴질랜드, 호주 동해안, 태평양의 수많은 섬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지도가 제작되어 지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세계의 주요 지역이 유럽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쿡의 탐험은 단순한 지리적 탐험을 넘어, 천문 관측, 동식물 표본 수집, 원주민 문화 기록 등 과학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후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제임스 쿡은 뛰어난 항해술과 지도 제작 능력, 그리고 과학적 탐구 정신으로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그의 탐험이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표 1> 제임스 쿡 탐험대의 탐사 활동

탐험대	기간	항해경로	주요 발견 및 특징	기타
쿡 선장 탐사대 1차 (제임스 쿡 James Cook) (영국)	1768-1771	영국 플리머스 출발, 남 아메리카 혼곶 우회하 여 타히티, 뉴질랜드, 호주 동부 해안 발견 및 탐사,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경유하여 귀국	- 타히티에서 금성 관 측 - 뉴질랜드의 남 북섬 분리 사실 확인 (쿡 해 협) - 뉴질랜드 전 해안선 지도 제작 - 호주 동부 해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 김.	

북 선장 탐사대 2차 (제임스 쿡 James Cook) (영국)	1772-1775	영국 출발, 아프리카 희 망봉 돌아서 남극권 진 입(남위 71° 10'까지 남 하), 태평양 중부 탐 사, 이스터섬, 뉴칼레도 니아, 통가 제도, 귀국	-남극 대륙 주변의 극 도로 추운 해역을 탐사 하여, 기존에 상상했던 '온화한 남방 대륙'이 없음을 입증 -이스터섬, 뉴칼레도니 아, 통가 제도 등 발견 및 지도 제작	지리학자인 요한 라 인홀트 포르스터 (Johann Reinhold Forster)와 요한 게 오르크 아담 포르스 터(Johann Georg Adam Forster)가 탐험에 참여하여 항 해에 대한 과학 보고 서를 작성
북 선장 탐사대 3차 (제임스 쿡 James Cook) (영국)	1776-1779	영국 출발, 아프리카 희 망봉, 뉴질랜드, 타히티 재방문, 하와이 열도 발 견, 아메리카 북서부 해 안을 따라 북상, 베링해 협 진입	북서항로 탐색 및 하와 이 발견	1778년 하와이에 다 시 들어갔을 때 원주 민과의 싸움으로 쿡 선장이 살해당했고, 남은 선원들이 계속 항해 완료함

(자료 : Kraemer, Walter, 1961, 189-375²⁶)와 탐험대의 기록 등 참조)



[그림 1] 제임스 쿡의 세계 일주 항해 경로(1768년 - 17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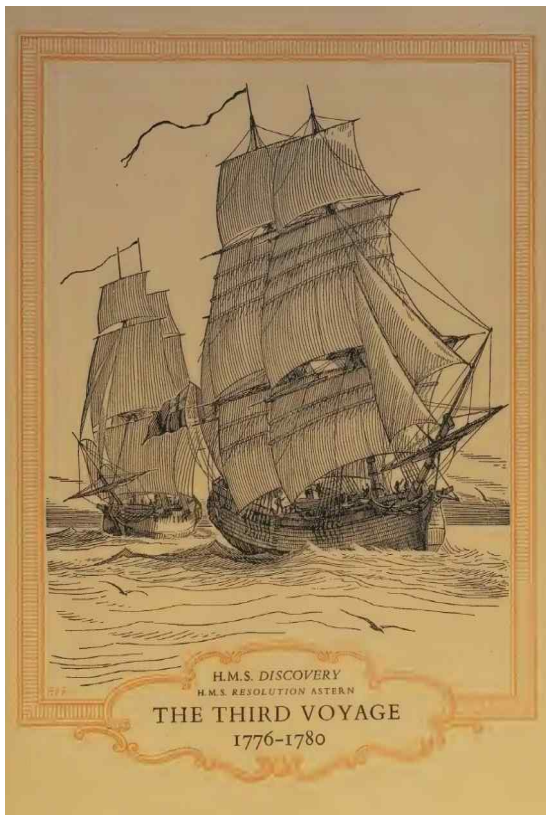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James-Cook>)

26) Kraemer, Walter, 1961, Die Entdeckung und Erforschung der Erde, Veb F.A.Brockhaus Verlag Leipz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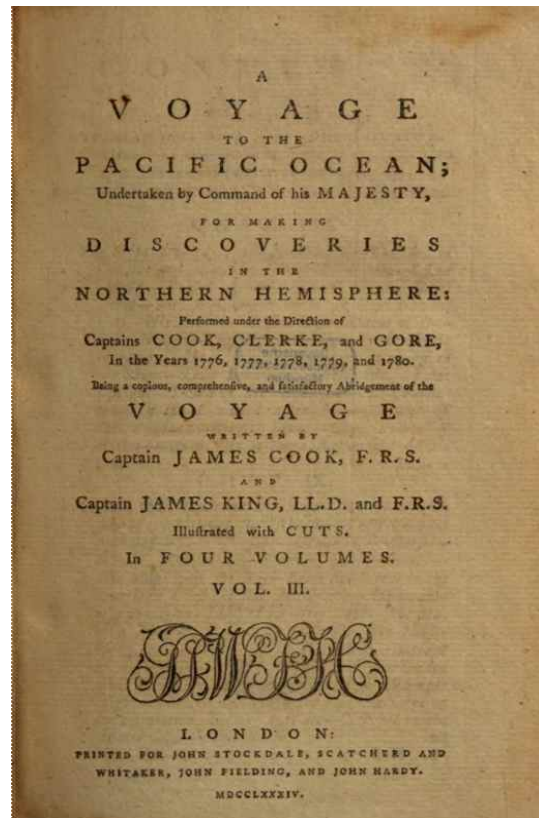
3. 제임스 쿡의 북극해 탐사 기록

제임스 쿡의 3차 탐험대(1776-1780)는 두 척의 범선(HMS Resolution 호와 Discovery 호)으로 항해하였다. 항해 목적은 북극해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를 탐색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북미대륙 북부를 둘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항로를 발견하면,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쿡은 ‘리솔류션 호’를 지휘하였고, 찰스 클러크(Charles Clerke)이 ‘디스커버리호’의 선장을 맡았다.



[그림 2] 제임스 쿡의 3차 탐사대



[그림 3] 제임스 쿡의 탐사 기록²⁷⁾

1776년 영국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하여 태평양에 진입한 쿡의 탐사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쪽과 뉴질랜드 섬을 통과하여 항해하였고, 태평양 섬들을 탐사하고 하와이제도(‘샌드위치 제도’로 명명함)를 탐험하고 계속 북상하였다. 그동안 탐사대는 체계적 측심(수심 측정)과 해류·편차 기록, 천문 관측을 결합해 항로를 구축하였다. 뉴펀들랜드·뉴질랜드·태평양 전역의 정밀 해도를 작성하였다.

27) Cook, James, 1784, A voyage to the Pacific Ocean; undertaken by command of his Majesty, for making discoveries in the northern hemisphere: performed under the direction of Captains Cook, Clerke, and Gore, in the years 1776, 1777, 1778, 1779, and 1780. Being a copious, ... abridgement of the Voyage written by Captain James Cook, F.R.S. and Captain James King, ... Illustrated with cuts. In four volumes. Vol 3.(원전출처 : Source: <https://archive.org/IA40310313-37>; 문헌 바이에른주립도서관 Bayrische Staatsbibliothek Muechen 소장본)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을 따라 오리건 해안(북위 44도)을 시작으로 캐나다 서해안을 따라 항해한 쿡의 탐사대는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북극권에 진입하였다. 1778년 8월 4일에는 알래스카 서북쪽의 슬레지 섬(Sledge Island)을 발견하였다.

4일 오후 3시에 우리는 북북동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있는 육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까지 4마일까지 다가갔고, 그곳에서 4~5마일 떨어진 곳에서 배를 멈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약해지자, 우리는 육지에서 약 2리그²⁸⁾ 떨어진 곳의 폭신한 바닥 위 13페덤²⁹⁾ 깊이에서 닻을 내렸다. 우리의 위도는 이제 북위 64도 27분, 경도 194도 18분이었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해안이 뻗어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그리고 상당한 고도를 가진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북서쪽으로 9마일 떨어져 있다. 이 섬의 위도는 북위 64도 30분이고, 경도는 동경 193도 57분이다. 그 땅의 표면은 주로 큰 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곳에 이끼와 다른 식물들이 덮여 있었다. 그중 스무 종에서 서른 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관찰되었고, 대부분은 꽃이 피어 있었다. 그러나 선장은 섬 위에서도, 인근 대륙 위에서도 나무나 관목을 보지 못했다. 그가 상륙한 해변 근처에는 상당한 양의 야생 채소, 긴 줄기, 완두콩 등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가 끓여 먹기 위해 배에 실었다. 그는 여러 마리의 물떼새와 다른 작은 새들을 보았고, 여우 한 마리도 목격되었다. 그는 일부가 쇠퇴한 오두막들을 만났는데, 그중 일부는 지하에 지어졌다. 사람들은 최근에 그 섬에 왔었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잘 닦인 길이 있어 그곳으로 자주 오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들이 상륙한 해안의 그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썰매 하나를 발견했고, 이 때문에 쿡 선장은 그 섬을 슬레지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캄차카에서 러시아인들이 눈이나 얼음 위를 통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다. 폭은 약 20인치, 길이는 10피트 정도였으며, 양쪽에 일종의 난간이 있었고 뼈로 깔려 있었다. 그 구조는 훌륭했고, 여러 부분이 매우 깔끔하게 조립되어 있었다. 일부는 나무 편으로, 대부분은 끈이나 고래뼈 매듭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선장은 이것이 전적으로 원주민들의 솜씨라고 생각했다.³⁰⁾

1778년 8월 11일에 함대는 베링 해협을 통과하여 북극해로 진입했다. 베링 해협을 통과하면서 쿡은 아메리카 대륙 서쪽 끝을 웨일스 공(Prince of Wales)의 이름으로 명명했고, 디오미드 제도를 지났다. 함대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본격적인 북서항로 탐사에 나섰다.

처음에, 일부는, 우리는 이 땅이 스텔린 지도(Mr. Stæhlin's map)에³¹⁾ 표시된 알래스카 섬의 일부라고 여겼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나 해안의 모습과 아메리카 반대편 해

28) League(리그)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길이 또는 거리 단위로, 특히 항해 및 육상 이동 거리 측정에 쓰였다. 고대부터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정확한 길이는 달랐으며, 현재는 공식적인 표준 단위로 사용되지 않는다. 리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약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유래했는데, 스페인 리그는 지역에 따라 4km에서 6.7km까지 다양했으나, 16세기 탐험 시대에는 대체로 3마일(스페인마일)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https://wikipedia.org/>)

29) fathom : 길이단위, 6 feet(1.8288m)에 해당

30) Cook, James, 전계서 21-23.

31) 지리학자였던 제이콥 폰 슈텔린(Jacob von Stæhlin)이 1774년에 제작한 해도

안의 지형, 그리고 경도를 통해 우리는 곧 이곳이 더 가능성이 높게는 축치족의 땅, 즉 아시아의 동쪽 끝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되었다. 1728년에 베링에 의해 탐험되었다.

다음 날(8월 11일) 12시에는 배의 위치는 북위 66도 54분, 동경 191도 19분이었고, 수심은 28 패툼이었으며, 우리의 위치는 두 해안 사이 수로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었는데, 각 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7리그였다.³²⁾

함대는 8월 16일 12시경에는 북위 70도 33분, 경도 197도 41분에 도착하였고, 밤하늘에 밝은 빛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1778년 8월 18일, 알래스카 아이시 케이프(Icy Cape) 인근 북위 70°44'지점에서 거대한 빙산과 밀집된 유빙군을 만나 항해가 완전히 가로막혔다.

마치 벽처럼 견고하고, 높이가 최소 10~12피트는 되어 보이는 얼음덩어리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바람은 이제 우리 쪽으로 불었다. 12시쯤, 두 천체와 달이 간격을 두고 뚜렷하게 보였고, 정오까지, 북위 70도 33분, 경도는 197도 41분이었다.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의 싸움에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얼음은 전혀 뚫을 수 없었고, ... 그 중 일부는 물속에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얼음이 해상에 있었다.³³⁾

얼음 장벽을 만난 후 탐험대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고, 상황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바람을 타고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배가 있는 방향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서 얼음에 밀려 배가 육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쿡 선장은 북서향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약 11일 동안 얼음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과 서쪽(시베리아 해안 방향)으로 항해하며 틈새를 찾았으나, 끝내 열린 바다를 찾지 못하고 9월 2일 베링 해협을 통해 다시 남하했다.



[그림 4] 제임스 쿡의 북극해 탐사 경로

(원도 출처: <https://kr.pinterest.com/pin/375769162642587573/>, 필자 편집)

1779년 2월 하와이로 돌아온 쿡은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그들에게 살해당하였다. 원정대의 지

32) 전계서 34.

33) 전계서 37-38.

휘는 국과 함께 세 차례 항해를 모두 함께한 찰스 클릭(Charles Clerke가 맡았다. 원정대는 본래 임무였던 '북서항로(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북극해 관통로) 개척'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북상하여 베링해로 진입하여 북서항로를 개척하려 하였으나, 역시 얼음과 기상상태로 실패하고 베링해협에서 캄차카로 가는 도중 클릭이 결핵으로 사망했고, 캄차카에 묻혔다. 이어서 클릭의 부관인 존 고어(John Gore)가 원정대를 지휘했고, 동지나해와 순다해협을 거쳐 케이프타운에 도착했고, 1780년 8월 영국으로 돌아왔다.

4. 제임스 쿡 북극해 탐사의 성과와 의의

16세기 유럽 국가들의 관심사 하나는 중국 등 아시아에서의 향신료를 구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로의 남방항로는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었고,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거치는 동방항로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방 무역루트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를 열려 하였고, 북극해를 통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하였다.

18세기 후반 유럽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북극해 항로, 특히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탐색에 큰 관심을 두었다.

쿡의 탐사 이전까지 북서항로 탐사는 러시아와 스페인이 주도권을 갖고 성과를 내고 있었다. 1774년 제이콥 폰 슈테일린(Jacob von Staehlin)은 러시아 탐험대의 북태평양 항해기, 즉 새로 발견된 북방 도서에 관한 항해기에 알래스카를 포함해 북태평양 지역의 탐험 정보 및 해도를 실었다. 이 책은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 사이에 널리 애독되었다. 스페인도 러시아 알래스카 탐사에 자극받아 1775년과 1779년의 콰드라(Juan Francisco de la Bodega y Quadra) 탐험대를 포함하여 수차례 북서항로 탐사에 나섰다. 1775년 영국인들은 콰드라를 수행했던 부사령관 모렐리(Francisco Antonio Mourelle)의 항해일기를 입수한 뒤 번역 출간하였다. 그는 북위 58도 30분까지 항해하였고 알렉산더 군도의 부카렐리 만을 발견하였는데, 이 책에 실린 항해 정보는 쿡의 북서항로 탐사에 활용되었다.³⁴⁾

제임스 쿡(James Cook)의 마지막 항해(1776-1780)는 이러한 국제적 탐험 정책으로 수행되어, 북극해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항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결국 빙하에 가로막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임스 쿡이 베링해를 통해 북극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후에도 19세기에 존 프랭클린(John Franklin, 1845), 로버트 맥클루어(Robert McClure, 1850), 존 레이(John Rae, 1854) 등으로 이어지는 북서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대규모 탐사가 계속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 1903-1906)의 북서항로 탐사가 이루어졌다. 아문센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3년간의 탐험 끝에 1906년 알래스카 태평양 연안의 놔에 도착했다.

그러나, 최종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난 쿡의 북극해 탐사였지만, 쿡의 탐사대가

34) Thrapp, Dan L., 1991, Encyclopedia of Frontier Biography: In Three Volum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028(재인용 : 임하람·정문수, 2024, “제임스 쿡의 태평양 탐사(1768-1780)와 자유해 담론의 관철”,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8, No.3 169-194(<https://doi.org/10.31720/JGA.8.3.8>), 178)

남긴 기록은 단순한 항해 일지를 넘어 지리학·민족학·항해사·역사학적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쿡의 항해 기록은 북미 서해안에서 알래스카 베링해, 추치해에 이르는 4,000마일 이상의 해안선을 조사하고 정확도의 갖춘 해도와 지도를 작성했고, 후세에 이어진 탐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림 5] 제임스 쿡의 제3차 세계일주 항해 측량도

(출처 : Ledyard, John, 1783, A journal of Captain Cook's last voyage to the Pacific Ocean, and in quest of a North-west passage, between Asia & America [microform] : performed in the years 1776, 1777, 1778, and 1779, Hartford [Conn.] : Printed and sold by Nathaniel Patten.)

또한, 알래스카와 치추크 반도 연안의 지형, 해류, 기후와 생물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자료를 남겼다. 전술한 알래스카 연안의 식생 묘사를 비롯하여, 북극해에서의 바다코끼리³⁵⁾에 대한 기록에서 관찰과 분석의 사례를 볼 수 있다.

35) 'sea horse' 로 표현됨

우리는 얼음 위에 엄청난 수의 해마(sea horses)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이들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동물들조차도, 그 이빨, 즉 엄니는 길이가 반 피트를 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았다. 따라서 그들은 최근에 오래된 이가 빠졌다고 결론지었다.³⁶⁾



[그림 6] 바다코끼리의 관찰 기록

(출처 : Cook, James, 1784, 전게서, 40-41)

항해 중 만난 축치족 등 북극권 원주민의 생활 방식, 사냥 기술, 주거형태 등을 관찰하고 분석 기술하여 18세기 유럽 학계에 새로운 인류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축치족과의 접촉에서 관찰 기록 된 사례 등을 통하여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점차 우리 사이에 일종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칼, 구슬, 담배,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대가로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옷 몇 벌과 화살 몇 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은 어떤 것도 그들이 창이나 활을 내어줄 만큼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한때 네다섯 명이 그들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노래와 춤을 선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들은 그들을 순식간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다.

화살촉은 뼈나 돌로 만들어졌지만, 톱날이 달린 것은 매우 드물었고, 일부는 둥글고 무딘 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은 동물을 죽이는 데 쓰인다면 예외겠지만. 그 활들은 우리가 아메리카 해안에서 보았던 것과 같았으며,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던 것과도 같았다. 창은 철이나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유럽식 또는 아시아식 수제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조각과 낚시 및 흰색 자개 상감으로 장식하는데 결코 적은 수고가 들지 않았다.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던 이

36) Cook, James, 1784, 전게서, 39-40.

들은 가죽 끈으로 어깨에 창을 메고 있었다. 가죽 화살통이 왼쪽 어깨에 매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화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화살통 중 일부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붉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는 아주 정교한 자수와 다른 장식들이 있었다. 몇 가지 다른 것들, 특히 그들의 옷차림은 그들이 상당한 수준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북쪽의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해안에 도착한 이후로 본 모든 아메리카인은 키가 다소 작고,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광대뼈가 높았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얼굴은 길쭉했고 몸집은 튼튼하며 잘 만들어져 있었다. 요컨대, 그들은 상당히 다른 민족으로 보였다. 우리는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보지 못했고, 대머리인 남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이 든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무기를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선발된 남성들처럼 보였고, 중년보다는 다소 젊고 위쪽에 있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검은 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 모두는 귀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고, 몇몇은 유리구슬이 달려 있었다. 이것들은 유일한 고정 장식품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입술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아메리카인들과 또 다른 점이다.

그들의 옷차림은 모자, 드레스, 바지 한 벌, 부츠 한 켤레, 그리고 가죽이나 사슴, 개, 물개 등의 가죽으로 만든 올로보스 한 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매우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이 있거나 거의 없었고,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이 없었다. 모자들은 머리에 아주 밀착되도록 만들어졌고, 대부분이 쓰고 있던 이 모자들 외에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개 가죽으로 만든 후드 몇 개를 얻었는데, 그것들은 머리와 어깨를 모두 덮을 만큼 컸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보였지만, 머리는 밀려 있거나 아예 잘려 있었고, 그 누구도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얻은 몇 안 되는 물품 중에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칼과 담배였다.

우리는 그 마을이 그들의 여름 거주지와 겨울 거주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후자는 정확히 금고와 같으며, 그 바닥은 지표면보다 약간 낮게 파여 있다. 내가 조사한 것 중 하나는 길이가 약 20피트, 높이가 12피트 이상인 타원형이었다. 틀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고래 갈비뼈를 신중하게 배치하여 같은 종류의 더 작은 재료들과 함께 묶었다. 이 틀 위에는 질기고 거친 풀로 덮개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는다. 그래서 집의 바깥쪽은 작은 언덕처럼 보이며, 두 측면과 한쪽 끝을 둘러싼 높이 3~4피트의 돌담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반대편 끝에서는 땅이 경사진 채로 높아져 있어, 그 끝 지붕 위쪽에 난 구멍을 통해 입구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다. 바닥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일종의 지하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물밖에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각 집의 끝에는 아치형 천장이 있는 방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창고라고 생각했다. 이 저장고들은 어두운 통로를 통해 집과 연결되어 있었고, 지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붕의 구멍을 통해 야외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지하에 있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한쪽 끝은 언덕 가장자리까지 닿아 있었고, 그 언덕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돌로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큰 물고기의 큰 뼈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센 트라이 상자, 즉 탑이 서 있었다. 여름용 오두막은 꽤 크고 둥근

형태였으며, 꼭대기가 뾰족하게 되어 있었다. 그 틀은 몇 개의 기둥과 뼈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하나의 안쪽을 조사했다. 문 바로 안쪽에 벽난로가 있었고, 그곳에는 모두 매우 더러운 나무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침대는 옆쪽에 가까이 있었고, 내부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어느 정도 사생활은 지켜지는 듯했다. 가죽으로 만든 여러 칸막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와 침구는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은 건조하고 깨끗했다. 거주지들은 여러 단계로, 높이가 10피트 또는 12피트 정도로 세워졌는데, 이는 우리가 아메리카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관찰한 것과 같다. 그것들은 온전히 뼈로 이루어져 있었고, 물고기와 가죽을 말리기 위한 용도로 보였다. 그렇게 말린 것들은 그들이 많은 개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이 개들은 여우 종류로, 꽤 크고 색깔도 다양하며, 양털 같은 길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아마도 겨울에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썰매는, 내가 보기에 겨울 오두막 중 하나에 꽤 많이 쌓여 있었다. 개가 그들의 먹이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카누는 북부 아메리카인들의 카누와 같은 종류이며, 마을 아래 개울가에는 크고 작은 카누들이 몇 척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큰 물고기 뼈와 그들이 먹는 해양동물들을 보면, 바다가 그들의 생계 대부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토지는 매우 황량해 보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도 관목도 전혀 자라지 않았다. 서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최근에 내린 눈으로 덮인 산등성이를 관찰했다.



[그림 7] 축치족의 생활모습과 주거지 묘사

(출처 : Cook, James, 1784, 전게서, 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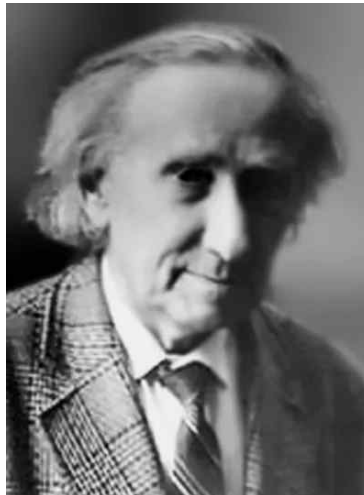
캄차카 탐험사 - 스타두힌 이야기 8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학술연구교수)

캄차카 반도(Камча́т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Kamchatka peninsula)는 북극에 인접한 지역으로 러시아에서는 북극의 관문이라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은 추코트카 지역(혹은 축치반도)과 더불어 극동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의 역사에서 캄차카 발견은 ‘동쪽으로의 진군’과 ‘시베리아 정복’의 완결로 해석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도 본 글은 계속해서 캄차카 탐험사, 그 중에서도 스타두힌의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글은 러시아의 저명한 캄차카 역사 연구자인 보리스 페트로비치 폴레보이(Борис Петрович Полевой)의 기념비적인 저작 『캄차카 발견에 관한 새로운 성과들』(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¹⁾에서 발췌, 번역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그림 22. 보리스 P. 폴레보이



출처: “Полевой Борис Петрович,”

<https://bsk.nios.ru/enciklopediya/polevoy-boris-petrovich> (검색일: 2024.10.01.).

1) Б. П. Полевой, *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 (Петропавлоск-Камчатский: Издательство “Камчатский печатный дво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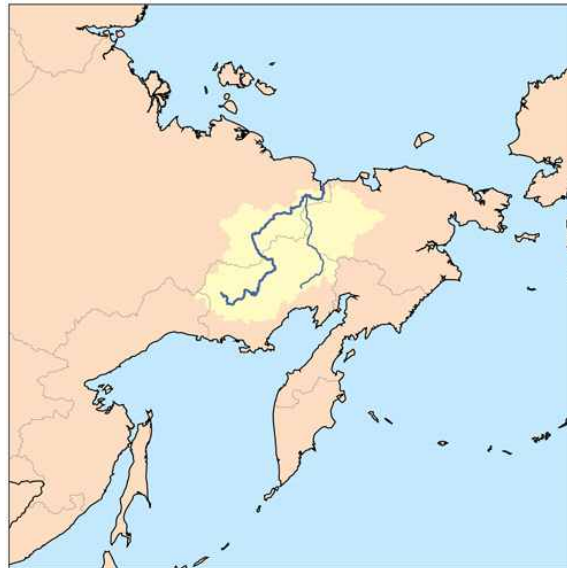
1. 1696년 이전 캄차카를 탐험한 러시아인들

1) 미하일 스타두힌(Михаил Стадухин) - 여덟 번째 이야기

(지난호에서 예고한대로 1961년 마가단 출판사를 위해 저자인 미하일 폴레보이가 준비한 스타두힌의 전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한다.)

1644년 6월 콜리마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카자크들은 최초로 거둔 콜리마 야삭 전부를 코치(коч) 한 척에 싣고 바다를 향해 가기로 결정했다. 코치의 항해는 드미트리 미하일로프 야릴로 지란(Дмитрий Михайлов Ярило Зырян) 스스로가 맡았다. 그러나 이미 콜리마 강 하구에서 해빙이 코치를 압박했기에 항해에 참여한 이들은 콜림스크 요새로 되돌아가야 했다.

그림 23. 콜리마 변경



출처: “Колымский край,”

https://ru.wikipedia.org/wiki/%D0%9A%D0%BE%D0%BB%D1%8B%D0%BC%D1%81%D0%BA%D0%B8%D0%B9_%D0%BA%D1%80%D0%B0%D0%B9#/media/%D0%A4%D0%B0%D0%B9%D0%BB:Kolymarivermap.png (검색일: 2026.08.13.).

1644년 여름 카자크들과 수렵꾼들은 콜리마 강 상류로 물길을 따라 이동했고 그곳에 위치한 ‘새로운 땅’(новые земли)을 알게됐다.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광대한 콜리마 변경(Колымский край)에 관한 자신들의 관념을 점진적으로 확장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러시아인들은 보릿고개 시기(голодные годы)에 자주 산맥을 넘어 머나먼 강들로 가던 콜리마의 유카기르족으로부터 ‘바위 너머’(за каменем), 다시 말해 산맥의 고개(горные хребты)를 넘어 어떤 ‘러시아인도 아직 가보지 못한’(русские ещё не бывали) 곳에 또 다른 풍성한(богатые) 강들이 존재한

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들었다.²⁾ (그리고) 그 당시 언젠가 미하일 스타두힌에게 이 머나먼 강들에 가보겠다는 최초의 열망이 잉태됐다.

콜리마의 유카기르족과 러시아인들의 관계는 점차 개선됐다. 야삭은 성실히 납부됐고, 요새 주위에서 상업적 거래도 시작됐다. 바로 그때 중부 콜리마 러시아-유카기르 시장('ярмонка')이 탄생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흑담비(соболи) 가죽을 얻고자 유카기르인들에게 도끼와 무쇠창('пальмы'³⁾)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생산된 강철 화살촉(железные наконечники стрел)까지 건네주기 시작했다. 분명 이런 거래는 러시아인과 유카기르족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당시 인디언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콜리마의 (러시아) 식민지가 북미의 영국 식민지보다 훨씬 평화로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놀랍지않은 것이 러시아인들은 북미의 영국 식민지 거주민들과는 달리 지역 토착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토착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경우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오랜 '터전'(жизня)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1645년 봄, 미하일 스타두힌은 때마침 콜리마가 안정을 찾고, 야삭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상업적 거래가 활기를 띠며 발전하자, 그는 개인적으로도 야쿠츠크 당국에 새로운 '영토 콜리마'(Колымская земля)의 러시아 병합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쿠츠크로 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때 스타두힌이 콜리마에서 그의 동료들과 떠난 후에 남겨질 9명의 카자크 대원 전부가 불평하기 시작했다. 콜리마의 유카기르인들이 러시아인들의 인원이 적은 것을 알게 되면 (남은) 모든 카자크인을 없애버리려 돌변하기 쉽다는 불평이었다. 카자크들은 그들 모두가 스타두힌과 함께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스타두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모든 카자크들이 그와 함께 떠난다면, 그 자체로 그가 2년동안 노력했던 모든 성과들이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남겨진 카자크들은 불만에 가득찼는데, 그 속에는 세몬 데즈노프도 있었다. 데즈노프는 야쿠츠크 요새로 그 '유명한'(известную) 민장문서(челобитную)를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 안에는 스타두힌이 그들을 '코비마(Ковымском, 콜리마) 요새에 강제로 남아 있게 했다'는 불만이 담겨 있었다.⁴⁾ 이 민장문서의 내용에서는 콜리마에 살았던 카자크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음이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돼지도, 화약도, 여분의 빵도, '수로용 가설 어망'(сетей наводных)도, '연어잡이용 설치 어망'(сетей пущальниц)도 없었고, 그물을 만들 수 있는 '프라디나'(прядина)조차 없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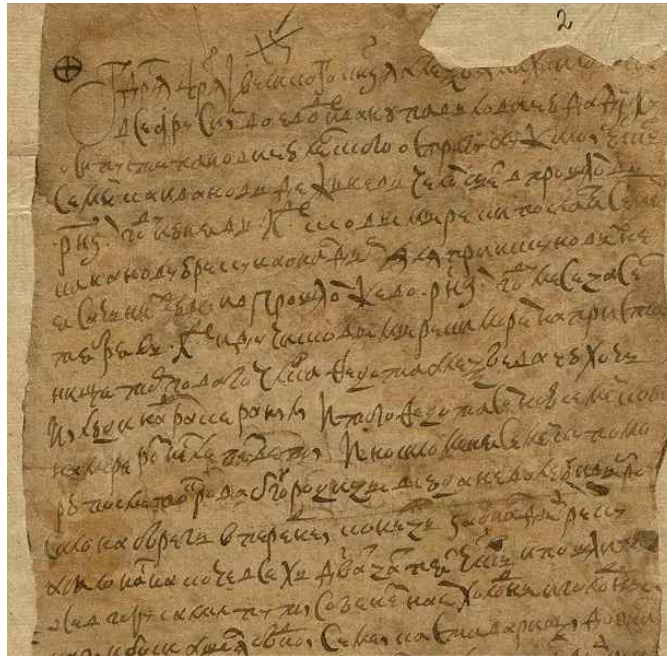
2) РГАДА. ЯПИ. Оп. 3. 1645-1646. N 23.

3) 역자주: 시베리아 지역 특유의 무기이자 창의 일종으로 팔리마('пальма')라고 불렸음. "Пальма (оружие)," [https://ru.wikipedia.org/wiki/%D0%9F%D0%B0%D0%BB%D1%8C%D0%BC%D0%B0_\(%D0%BE%D1%80%D1%83%D0%B6%D0%B8%D0%B5\)](https://ru.wikipedia.org/wiki/%D0%9F%D0%B0%D0%BB%D1%8C%D0%BC%D0%B0_(%D0%BE%D1%80%D1%83%D0%B6%D0%B8%D0%B5)) (검색일: 2025.07.04.).

4) РГАДА. ЯПИ. Оп. 3. 1645-1646. N 23.

5) Там же. N 46. Л. 97; РМ. С. 262.

그림 24. 세몬 데즈노프의 민장문서 일부



출처: “Семён Иванович Дежнёв - первопроходец земли Русской - Одна из «отписок» Дежнёва,”

<https://www.monetnik.ru/obuchenie/istoriya-rossii/semyon-dezhnev/> (검색일: 2026.08.13.).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스타두힌이 옳았고, 세몬 데즈노프와 그의 동료들이 틀렸다. 잔류한 카자크들은 스타두힌 시절에 이루어냈던 것을 단단히 고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콜리마에서 러시아의 영향력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콜리마 강 상류에 있는 ‘안타 강 입구에’(на устье Анты) 또 다른 새로운 콜리마 월동기지를 건설했다.⁶⁾ 1643년 ‘알라이 부족의 부락’(Алаевых житиях)에 설치됐고 (‘스타두힌의 코비마 요새’(стадухинский ковымский острожек)라 불리었던) ‘측벽이 있는 월동기지’(зимовье с нагородней)는 바로 그 이후에 빈번하게 러시아인들에 의해 단순히 ‘중부-콜리마(혹은 스레드네-콜림스크) 월동기지’(Средне-Колымским зимовьем)로 명명됐다.

6) КПМГЯ. С. 37.

그림 25. 1640년대의 스레드네콜림스크 요새 전경



출처: “Дореволюционная гравюр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города,”

[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 (검색일: 2026.08.13.).

스타두힌의 (귀환) 항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 해인 1645년 6월말 그는 콜리마 강을 따라 아래로 항해했고 단 한번의 운항으로 레나 강의 지간(Жиган)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⁷⁾ 거기서 스타두힌은 개썰매를 타고 1645년 11월 23일에 야쿠츠크까지 당도했다. 그는 콜리마에서 풍성한 전리품- ‘흑담비(соболей) 모피 40장 8뿔음(총 320장)’을 직접 가지고 왔다!⁸⁾ 그러나 스타두힌은 자신의 공적이 인정받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골로빈 총독(воевода)은 콜리마 강을 (러시아인) 최초로 발견한 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수개월 동안 ‘거의 아사 직전까지 괴롭혔다’(морил голодную смертью).⁹⁾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야쿠츠크의 주민들은 은밀히 모스크바로 수십장의 민장문서를 보냈다. 그 문서들에는 잔혹한 총독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이 담겨 있었다. 결국 모스크바에서는 야쿠츠크로 새로운 총독들인 푸시킨(В. Н. Пушкин)과 수포네프(К. О. Супонев)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가 스타두힌을 오랜 고통에서 구해냈다. 그는 지치고 고갈된 상태로 나왔지만,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새로운 머나먼 원정에 관한 염원들이 그를 분발하게 했다.

1645년 인디기르카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은 사상 최초로 유카기르인들과 조우했다. 유카기르족은 자신들의 순록과 함께 자주 콜리마 강 상류를 거쳐 기단(Гыдан)을 따라 펜지나(Пенжина) 강으로 갔고, 그곳에서 파렌(Парень)을 거쳐 기지가(Гижига) 강 상류로도 갔다. 바로 이들로부

7) РГАДА. ЯПИ. Оп. 3. 1645-1646. N 46. Л. 97.

8) ДАИ. Т. III (1848). С. 40.

9) ОРЗ. С. 215.

터 러시아인들은 처음으로 풍성한 ‘포기차’(Погыча) - 현재의 파하차(Пахача) 강에 관해 들었다. 이는 러시아인에게 도달했던 현재의 캄차카 주(Камчатская область)¹⁰⁾ 북부 지역- 펜지나 강 남쪽에 이르는 서쪽 경로로 이어지는 지역-에 관한 가장 최초의 정보였다. 얼마 후에 콜리마 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유카기르어로 기지가 강 상류를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인 ‘첸돈’(Чендон)에 관해 듣게 됐다.

유카기르족뿐만 아니라 (당시엔 ‘유카기르족’으로 알았던) 라무트(Ламут)족으로부터 이 정보를 청취한 카자크 이반 예라스토프(Иван Ерастов)가 전한 그 전설적인 강 ‘포기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예라스토프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 그들은 현재 새로운 땅을 경험하고 있다. 레나 강 하구에서 나와 바다의 우측 방향을 향해 야나(Яна)와 사바치야(Собачья, 현재의 인디기르카(Инди́гирка)), 올로제이카(Олозейка), 코비마(Ковыма) 강들을 지나 새로운 강 포기차로 갔다. ... 그 포기차 강을 따라 강의 어느 방향으로 아직 야사를 지불하지 않는 수많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다. ...” 예라스토프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기도 했다: “... 지금까지 그 강에 러시아인이 간 적은 없다.”¹¹⁾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야쿠츠크 당국과 함께 전설의 ‘포기차’에 (러시아인) 최초로 도달하고자 했던 미하일 스타두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26. (포기차)파하차 강 (붉은색 원 안)



출처: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Карта-схема,”

[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 (검색일: 2026.08.13.).

(다음호에 계속)

10) 역자주: 캄차카 주는 2007년 코랴크 자치구(Коряк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와 통합되어 캄차카 변경주(Камчатский край)가 됐다.

11) Там же. С. 221-222.

[참고문헌]

- Дополнения к Актам историческим (ДА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сборники). Т. III – V. С Пб., 1848-1853.
-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Якутии (КПМГЯ) в XVII век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сборник. Ленинград, 1936.
- Открытия русских землепроходцев и полярных мореходов XVII веке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Азии. Сб. докум. Составитель Н. С. Орлова. Под ред. член-корр. АН СССР А. В. Ефмова. М., 1951.
- Полевой, Б. П. *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 Петропавлоск-Камчатский: Издательство “Камчатский печатный двор,” 1997.
- Ру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РГАДА), бывший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ЦГАДА) в Москве, якутские приказная изба (ЯПИ), Оп. 3. 1645-1646. N 23 и N 46.
- Русские мореходы (РМ) в Ледовитом и Тихо океанах. Сб. докум. Составил М. И. Белов. Л.: М., 1952.
- “Дореволюционная гравюр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города,”
[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 (검색일: 2026.08.13.).
-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Карта-схема,”
[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https://ru.wikipedia.org/wiki/%D0%A1%D1%80%D0%B5%D0%B4%D0%BD%D0%B5%D0%BA%D0%BE%D0%BB%D1%8B%D0%BC%D1%81%D0%BA#/media/%D0%A4%D0%B0%D0%B9%D0%BB:16003184.600000009_colorized-photo_(4).jpg) (검색일: 2026.08.13.).
- “Колымский край,”
https://ru.wikipedia.org/wiki/%D0%9A%D0%BE%D0%BB%D1%8B%D0%BC%D1%81%D0%BA%D0%B8%D0%B9_%D0%BA%D1%80%D0%B0%D0%B9#/media/%D0%A4%D0%B0%D0%B9%D0%BB:Kolymarivermap.png (검색일: 2026.08.13.).
- “Пальма (оружие),”
[https://ru.wikipedia.org/wiki/%D0%9F%D0%B0%D0%BB%D1%8C%D0%BC%D0%B0_\(%D0%BE%D1%80%D1%83%D0%B6%D0%B8%D0%B5\)](https://ru.wikipedia.org/wiki/%D0%9F%D0%B0%D0%BB%D1%8C%D0%BC%D0%B0_(%D0%BE%D1%80%D1%83%D0%B6%D0%B8%D0%B5)) (검색일: 2025.07.04.).
- “Полевой Борис Петрович,” <https://bsk.nios.ru/enciklodediya/polevoy-boris-petrovich> (검색일: 2024.10.01).
- “Семён Иванович Дежнёв – первопроходец земли Русской – Одна из «отписок» Дежнёва,” <https://www.monetnik.ru/obuchenie/istoriya-rossii/semyon-dezhnev/> (검색일: 2026.08.13.).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